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

주최_ 의정부예술의전당

주관_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일시_ 2014년 5월 17일 (토) 14:00 – 16:30

장소_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행사 일정 및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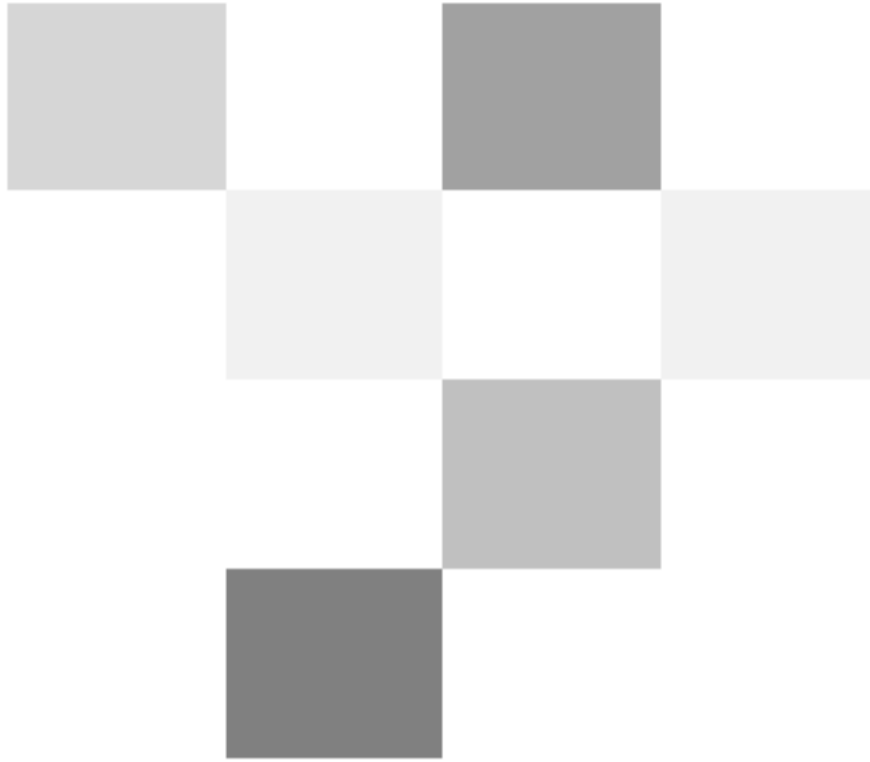
1부

14:00 ~ 14:10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음악극어워드 시상식		
14:10 ~ 14:15	인사말	박형식 집행위원장	p. 3
14:15 ~ 14:30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소개	이 훈 총감독	p. 7

2부

14:30 ~ 14:50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	김소연 연극평론가	p. 33
14:50 ~ 15:10	음악극의 국제성과 한국적 창작의 과제	허순자 교수	p. 47
15:10 ~ 15:30	음악극축제의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오순환 교수	p. 55
15:30 ~ 15:45	Coffee break		
	종합토론		
15:45 ~ 16:30	좌장 : 박양우 교수 토론자 : 김영호 본부장 유진규 예술감독 이수범 교수 장지영기자		p. 61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인 사 말

박형식 집행위원장
이훈 총감독

인사말



박형식_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장,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올해로 13회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의정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악극축제를 올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 야외행사를 전면 취소했으며 순수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재정비 했습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 입니다.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음악과 무대로 표현됩니다.

해외초청작으로 축제주제에 적합한 삶의 무게와 시대상을 점목시킨 폴란드 모플레 극장의 〈맥베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최고의 극단으로 평가받는 러시아 타캉카 극장의 〈넛릿〉, 프랑스 아자르 컴퍼니의 〈매직더스트〉와 한일공동기획작 〈왜 왜 질문맨〉, 러시아 비로비잔시 인형극장의 〈우리가 사는 동화 속 세상〉을 초청하였습니다. 국내초청작은 뮤지컬 〈해를 품은 달〉, 음악극 〈수궁가〉, 〈세계를 웃기는 꿈-몽알스〉를 선정하여 예술과 삶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치유와 정확을 위한 예술로 시민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술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는 우리 삶을 보듬고 위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들이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2014년 5월

인사말



이 훈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총감독, 한양대학교 교수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극장 공연중심으로 축제를 축소하여 개최합니다. 공연예술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스쿨워크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주중에도 음악극과 공연을 개최하여 유치원과 학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수궁가〉와 〈왜 왜 질문맨〉 같은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었지만 일부의 예술체험을 진행하여 어릴 때부터 공연예술과 친해지도록 기획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악극으로 축제로 진화해나가겠습니다.

주제가 강화된 축제가 되고자 합니다.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를 주제로 공연작품과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기본 틀을 유지하되 매년주제에 맞는 이야기로 새로움과 변화를 펼쳐내는 축제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주제체험관에서는 ‘음악극이란 무엇인가’, ‘왜 의정부에 음악극인가’에 대한 설명과 올해 축제주제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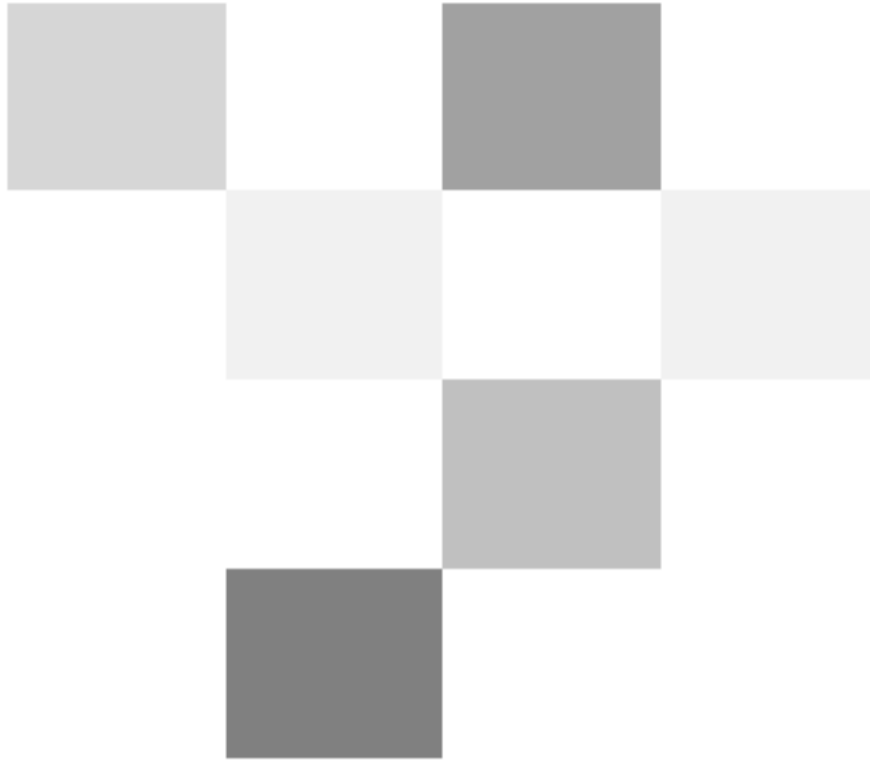
축제상징이 강화된 축제가 되고자 합니다.

상징을 통해 축제 브랜드와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기획했습니다. 축제색깔을 ‘핑크’로, 캐릭터를 Mr. M으로 확정하고 축제동작과 노래도 개발했습니다. 축제상징을 활용한 축제상품과 드레스코드를 지정하여 축제의 상징성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경기북부 문화중심도시 의정부에서 펼쳐지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14년 5월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소개

이 훈 총감독

음악과 스토리의 만남

제13회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2014년 5월 9일(금)~18일(일)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사무국

전화 031-828-5887 팩스 031-828-5835 홈페이지 www.umtf.or.kr

목차

- I. 축제 기본 계획
- II. 축제 행사 계획
- III. 홍보마케팅 계획
- IV. 축제 운영 계획



I

축제 기본 계획

- I. 축제 소개
- II. 축제 방향



축제소개



국내 유일 음악극축제 (2002 ~ 2013)



대한민국 예술계에는 신선한 자극을
의정부 시민 및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축제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상화 연극제 육성사업자정

2005년 경기도 방문의례 10대 기념축제

2005, 2007, 2008,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평가 최·우수 축제 선정

2010년 (제)예술경영지원센터 실시 문화예술축제·행사 전문가 인지도 8위

(전국 100여개 지역대표 축제·행사대상)

2010, 2011년 문예진흥기금지원 예술행사 평가 우수축제 선정

2014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공연예술축제 지원사업 선정



5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주제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

축제방향



예술성 진화

국제공연예술의 플랫폼 역할이 강화된 축제

▶ 세계무대에서 검증된 세계적 수준의 음악극 소개

국내 공연 예술계에
신선한 자극

의정부 시민, 방문객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 선사

▶ 풍성해진 프린지 프로그램 구성 (총 39단체 62회 공연)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음악극 진흥에 기여

관객들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축제방향



축제성 강화

예술체험과 놀이가 강화된 축제

- ▶ 예술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대중체험형 축제 지향

분필아트로드, 뮤직월1004프로젝트, 길거리 피아노 등



- ▶ 실내에서 거리로 확장되는 예술과 놀이의 공간

축제방향



주제성 확대

매년 주제가 있는 변화 축제

- ▶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 라는 주제 하에 축제 프로그램 구성

공연 프로그램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한
삶의 희로애락 표현

기획 프로그램
시민들의 생활 예술에 초
점을 맞춰 주제성 부각

- ▶ 주제관 설립 : 매년 소주제를 풀어내는 주제관
- ▶ 축제 interpreter : 축제와 주제를 설명하는 전문해설가

축제방향



상징성 정립

축제의 상징과 인지도를 높이는 축제

▶ 축제색깔과상징 강화

메인컬러 : **핑크**
축제의 기쁨과 행복 표현

축제 캐릭터 : Mr.M
신나고 재미있는
축제 이미지 전달



- ▶ 이미지가 있는 축제 : 상징그림, 탐, 공공미술
- ▶ 대동성이 강화된 축제 : 모든 참여자의 드레스코드 및 상징부착

II

축제 행사 계획

- I. 행사 일정
- II. 공연 프로그램
- III. 예술교류 프로그램
- IV. 특별기획 프로그램
- V. 체험 프로그램
- VI.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축제 일정



장소	5/9(금)	5/10(토)	5/11(일)	5/12(월)	5/13(화)	5/14(수)	5/15(목)	5/16(금)	5/17(토)	5/18(일)
대극장	베롱달 (개막작) 20:00	베롱달 (개막작) 15:00 /19:00			오페스 (폴란드) 20:00	오페스 (폴란드) 20:00	예술가에게 대타 (2일 중 1일)		넛렛 (러시아) 17:00	넛렛 (러시아) 17:00
										예술가에게 대타 (2일 중 1일)
소극장		베리디스트 (프랑스) 14:00 /18:00	베리디스트 (프랑스) 14:00	음악극 어워드 (14:00)	에 에 길문벤 (현일공동기 회) 11:00/13:00	에 에 길문벤 (현일공동기 회) 11:00	수궁가 20:00	수궁가 20:00	세상을 웃기는 꿈 -용알스 14:00 /17:00	세상을 웃기는 꿈 -용알스 14:00
전시실	음악극 주제 체험관 10:00-20:00									
구하	국립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심포지엄 14:00-16:30	

해외초청작



○ 넛렛(Net Let), 러시아

단체명 : 타강카 극장(Taganka Theatre)
공연장소 및 시간 : 대극장 2회 공연(100분)
관람연령 : 8세 이상

▶ 작품소개

2014년 극장창립 50주년을 맞는 타강카극장의 최신판. 'Net let'은 '에브게니 엠뉘센코'의 작품에 음악을 기미한 음악극형식의 작품

▶ 마케팅대상

- 공연예술 종사자 등 매니아, 연극공연 관심관계, 공연예술 전공학생
- 서울 및 경기북부, 의정부 시민
- 러시아 대사관내 소재 학교 학생(100여명), 국내 거주 러시아인, 러시아어/러시아문학 전공자

해외초청작



○ 맥베스(Macbeth), 폴란드

단체명 : 오폴레 극단(Opole Theatre)
공연장소 및 시간 : 대극장 2회 공연 (120분)
관람연령 : 15세 이상

▶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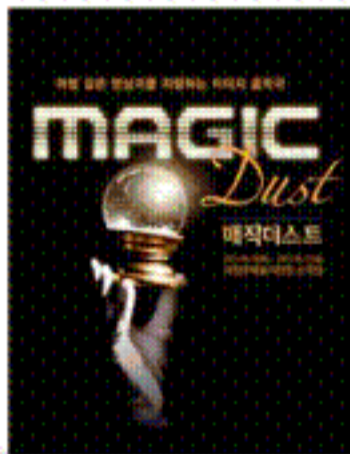
유럽 연극계 주목을 받고 있는 폴란드 '오폴레극단 (Opole Theatre)'의 아트디렉터 '토마스 코니카(Tomasz Konica)'가 연출한 작품. 셰익스피어의 고전인 '맥베스 (Macbeth)'를 현대적인 시각과 비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 본 실험적 작품

▶ 마케팅대상

- * 공연예술 종사자 등 메니아, 연극공연 관심관계, 공연예술 전공학생,
- * 서울 및 경기북부, 의정부 시민
- * 폴란드어 관련 학과

15

해외초청작



○ 매직 더스트(Magic Dust), 프랑스

단체명 : 아자르 컴퍼니(COMPAGINE azHar)
공연장소 및 시간 : 소극장 3회 공연 (50분)
관람연령 : 8세 이상

▶ 작품소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동화적인 영상이 돋보이는 작품 서정적인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와 재즈, 스윙, 탱고 등 다채로운 음악과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형극으로 구성. 2012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에서 공연

▶ 마케팅대상

- * 가족단위, 난비벌 퍼포먼스 공연과 멀티미디어아트 공연 관심자
- * 서울 및 경기북부, 의정부시민
- * 서울시내 프랑스학교 학생 및 가족, 국내 거주 프랑스인

16

해외초청작



○ 놀이음악극 '왜 왜 질문맨', 한일공동기획

단체명 : 일본 기제노코큐슈 / 극단 사다리
공연장소 및 시간 : 소극장 3회 공연 (60분)
관람연령 : 만 24개월 이상

▶ 작품소개

일본에서 10년간 공연한 극단 기제노코큐슈의 인기 레퍼토리 <산산산대망>을 극단 사다리가 공동기획한 온 가족을 위한 놀이음악극. 빠른 이야기 전개와 변형놀이, 무대전환, 소품 등을 활용하여 관객들과 공감대 형성이 돋보이는 작품

▶ 마케팅 대상

School Week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단체관람객

17

국내초청작



○ 우리가 사는 동화 속 세상 (러시아)

단체명 : 비로비잔시 인형극장
공연장소 및 시간 : 소극장 3회 공연 (60분)
관람연령 : 만 24개월 이상

▶ 작품소개

러시아의 유명한 3개의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 8명의 배우들이 30여개의 인형을 진행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동적으로 선과 우정, 협동의 교훈을 담아냄

▶ 극단소개

의정부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러시아 비로비잔시에 위치한 극단으로 음악적이면서 구전으로 동화들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

국내초청작



○ 창작음악극 '해를 품은 달'

단체명 : 쇼클레이 / 씨이다
공연장소 및 시간 : 대극장 3회 공연 (160분)
관람연령 : 8세 이상

▶ 작품소개

2013년 초연, 한국뮤지컬대상 9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팝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과 극을 조화롭게 구성

▶ 마케팅대상

- 여행을 통한 일본 개별관광객 홍보 및 유치
- 서울 및 경기북부, 의정부 시민
- 수도권외 뮤지컬애호가 및 '해를 품은 달' 팬클럽

19

국내초청작



○ 이미지음악극 '수궁가'

단체명 : 고래야
공연장소 및 시간 : 소극장 2회 공연 (60분)
관람연령 : 8세 이상

▶ 작품소개

가타, 락, 퍼커션, 대금, 거문고 등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를 통해 독특한 알트리스트 이미지와 다채로운 색감의 음악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공연

▶ 마케팅대상

여행사를 통해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
경기북부, 의정부 시민, 학생

○ 퍼포디언

'세상을 웃기는 꿈-옹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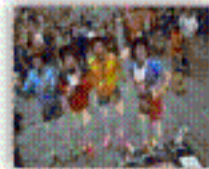
단체명 : 옹알스
공연장소 및 시간 : 소극장 3회 공연 (60분)
관람연령 : 만 36개월 이상

▶ 작품소개

마임과 저글링, 비트박스 등 난이별 퍼포디언 쇼

▶ 마케팅대상

경기북부, 의정부 시민 가족단위 관람객



○ 거리극 '선녀와 나무꾼'

단체명 : 예술무대 산
공연장소 및 시간 : 야외무대 2회 공연(야정)
관람연령 :

▶ 작품소개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이 언급적방식으로 재해석된 거리극

대명 줄연행 등 아기가 담긴 조형물과 오브제를 통해 표현



20

음악극 어워드



○ 공모 계획

- 공모명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음악극 어워드 공모
- 접수기간 : 2월 18일(화) ~ 3월 15일(토)
- 본선일시 : 5월 12일(월),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소요예산 : 총 10,000천원
 - 대상 1작품, 상금 300만원 (다음 해 음악극축제 초청 및 제작비 일부 지원)
※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수상 1작품, 상금 200만원, 장려상 1작품, 상금 100만원

○ 공모 대상

- 음악의 극적 내용과 감성을 표현한 음악극으로 그 형식은 자유로움
- 순수창작품으로 쇼케이스가 가능한 작품(Try out이나 워크샵 형태로 공연되었던 작품도 참가가능)
- 30분 내외의 소규모 공연으로 조명장치없이 실내 및 야외에서 공연 가능한 작품
- 개인(팀)당 1작품으로 제한함

21

자유참가작(프린지) 공연



○ 공모 계획

- 공모명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참가작 공모
- 접수기간 : 2014년 2월 7일(금) ~ 2월 18일(금)
- 결과발표 : 2014년 3월 11일(화)
- 공모단체 : 총 40여개 단체 및 개인 예정
- 소요예산 : 총 20,000천원
 - 대상 1작품, 상금 300만원 (다음 해 음악극축제 초청 및 제작비 일부 지원)
※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수상 1작품, 상금 200만원, 장려상 1작품, 상금 100만원

○ 공모 대상 및 자격

- 공모대상 : 의정부 혹은 관외지역 예술단체 및 개인
- 공모자격 : 음악(사운드)이 극의 전개 또는 이해의 필수요소인 음악극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작품
축제기간 중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참여 가능한 개인 및 단체
거리 혹은 야외무대에서 실연 가능한 예술작품으로 장르의 제약 없음
(연극, 마임, 무용, 퍼포먼스, 음악, 복합 등 어떤 장르와 형태도 신청가능)

22

특별기획 프로그램



행사명	행사 내용	
new 주제관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역사와 축제의 주제, 음악극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제관 마련 · 음악극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School week에 운영	
new 뮤지컬 영화 '시네마' ^M	· 축제기간 내내 삼야시간 에 의정부예술의전당 여외무대에서 음악극과 관련된 영화 를 상영 · 가족과 연인 등 시민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마련	
new 뮤직터널 '1004프로젝트'	· 축제의 주제에 맞게 시민들이 직접 타일에 그림 을 그리고 도자기로 구어 축제공간에 전시 · 탄영구적으로 축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new 전통한지 등 전시	· 음악극과 어울리는 전통한지 등을 옥외에 전시 · 의정부예술의전당 주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방문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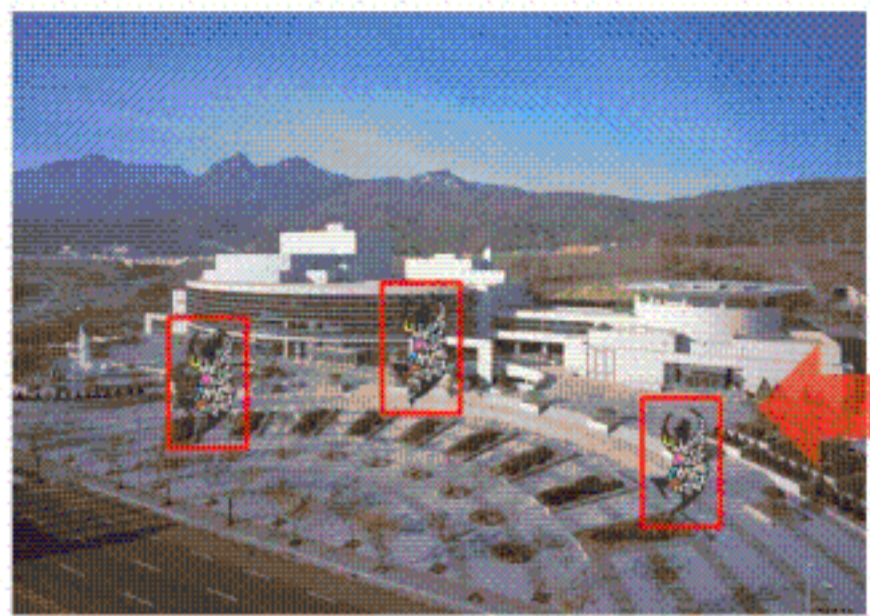
음악극 주제 체험관



- 전시일정 | 축제 전 기간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관
- 운영시간 | AM 10:00 - PM 20:00 , 해설시간 | 11:00 / 13:00 / 15:00 / 17:00
- 관람연령 | 전 연령



체험 프로그램



Mr. M 한지 등 만들기



- ▶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작은 등이 모여 거대한 Mr. M이 만들어짐
- ▶ Mr. M의 모습이 프린트 된 작은 조명등을 모아 거대한 Mr. M의 상징물이 되는 대표 체험프로그램
- ▶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축제 전 기간에 걸쳐 조금씩 완성된 Mr. M은 축제 제막 즈음 그 일관된 형태로써 완성됨

예술교류 프로그램

행사명	행사 내용
심포지엄	· 축제 및 예술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예술가와의 대화	· 해외초청작 중 '백네스'와 '넷렛'은 공연 2일 중 하루 예술가와 관객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 마련
new 네트워킹 파티	· 음악극 축제기간 동안 일자별로 프로듀서, 뮤지컬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등 공연예술계 관계자와 축제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체험 프로그램



○ 분필아트로드페스트

- ▶ 도로에 시민들이 분필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근엄함이 가득했던 예술의전당 공간이 축제기간 동안 **산뜻한 낙서장**으로 탈바꿈 됨
- ▶ 일반 시민들에게 축제장의 볼거리제공과 축제분위 조성
- ▶ 시민들이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의정국국제음악극 축제의 예술성 강조

체험 프로그램




○ 아트플레이어

- ▶ **니만의 Mr.M**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 ▶ **Mr.M의 다양한 동작을 담은 몸통, 팔, 다리**를 다양하게 조합한 후 **니만의 개성을 담아 멋지게 장식함**
- ▶ 이는 **소극장 로미오 제단 전체를 채워가며 축제장을 좀더 축제답게 만들 것**이다.




이벤트



행사명	행사 내용	
new 드레스코드	· 5월 우리의 압호는 핑크 손수건 핑크색 손수건을 머리, 목, 손목 등에 멋지게 착용한 멋쟁이들에게 음악극 축제가 음료를 씹니다.	
new Mr. M을 찾아라	· 무용수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춤을 췄다는 Mr. M. 그와 닮은 춤사위, 몸매, 포즈의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다! SNS를 공모 후 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됨	
new 보물찾기	· 축제장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 주말 특정 시간에 운영, 시작 30분전 보물찾기 피켓 홍보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행사명	행사 내용	
new 축제사진 콘테스트	· 축제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축제의 주제인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이다>를 잘 표현한 축제사진 촬영 대회 개최	
new 예술인장터	· 음악극축제 또는 Mr.M을 모티브로 한 아이템을 제작한 예술인커뮤니티를 섭외하여 예술인 장터를 마련함	
먹거리장터	· 축제장에 어울리는 먹거리 아이템을 선정하여 의정부 일원에 있는 관련 업체와 협의 하여 먹거리 장터를 마련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행사명	행사 내용	
new 찾아가는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장에서 열린. · 한국의 전통음악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바르게 소개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취지에서 전시가 행해지게 됨. 	
new 중고악기 베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만의 중고악기 베풀시장이 열리게 됨. · 각자의 삶과 스토리가 스며져 있는 중고악기들이 축제장에서 거래되면서 축제 주제인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됨 	
어린이 미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CI 의정부청년회의소와 협약하여 축제기간 중 토요일 낮 시간에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함 	

31

III

홍보마케팅 계획

- I.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 II. 홍보마케팅 추진일정
- III. 기념품 및 판촉물
- IV. 티켓 세일즈 계획



메인포스터



축제캐릭터 미스터엠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 아이덴티티 확보



- ▶ 오르골과 미스터엠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음악극의 성격 강조**
- ▶ 5월의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잔디를 배경으로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활기찬 축제 이미지**를 전달
- ▶ 공식 색상인 **핑크**색을 상하단에 균형있게 사용하여 포인트를 줌으로써 하늘색, 초록색으로 **화사함**을 강조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Uijeongbu International Music Theatre Festival
2014.5.9 FRI - 18 SUN

공연 사진으로 전환됨

LIMTE NOTICE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1회차, 2014.5.9-10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2회차, 2014.5.11-12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일, 2014.5.13-15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일, 2014.5.17-18

LIMTE NEWS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1회차, 2014.5.9-10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2회차, 2014.5.11-12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일, 2014.5.13-15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일, 2014.5.17-18

LIMTE EVENT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1회차, 2014.5.9-10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2회차, 2014.5.11-12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일, 2014.5.13-15
-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자유일, 2014.5.17-18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로 110 의정부예술의전당 내 국제음악극
TEL 031-828-5992-7
© 2014 Uijeongbu International Music Theatre Festival ALL RIGHTS RESERVED.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홍보	광고	프로모션
전국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new 예술의전당 홍보 유사축제 배너 교환 new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용 블로그 기자단, 카페 활용 택배 홍보용 스티커 부착 n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디오 프로그램 티켓 지원 잠지사 티켓 지원 n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 예약 할인 new 인센티브 관광객 모집 new 인바운드 여행사 판매대행
경기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소외지역 학생 공연초청 new 차량 스티커 배포 지역신문 축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수막 광고 포스터 광고 대행버스 랩핑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티켓 할인 외국인 대학생 기념품지원 new
의정부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인쇄물 배포 세금고지서 내 홍보이미지 삽입 new 의정부 신문, 행복소식지 축제홍보 의정부 자연활동가 모집 의정부동상합의회 협력 홍보 new 찾아가는 공연, 경진철 내 공연 공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TV광고 현수막, 포스터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부예술의전당 유·무료회원 할인 School week 운영 new

홍보마케팅 추진일정



구분	목표	기간	주요내용
준비단계	기본자료 준비	1월~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별 홍보 포인트 및 내용 정리 온라인 매체 활성화 스팟 영상 업체 선정 및 자료전달
기본단계	행사인지도 고양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오픈 및 운영 종합보도자료 작성 유관기관 공문발송(전광판, 자막광고협조) 등 오프라인, 광고 준비 완료
집중단계	행사직전 분위기 조성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홈페이지 및 SNS 페이지 본격 운영 옥외홍보물 게첨(배너 및 현수막) TV/Radio 스팟 송출(경기케이블 등) 오프라인, 광고 및 모든 매체 가동 8단 접지 전단
행사단계	행사현장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 기자단 취재 유도
평가단계	결산 및 평가	행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보도자료 발송 각종자료정리(인론스크랩, 사진, 영상자료)

기념품 및 판촉물 계획



품명	실사	규격	수량	품명	실사	규격	수량
T셔츠 (한자나일론제)		20수	700	풍선 (막대포함)			3000
손수건 (30수)		60*60	700	간자루부채		19cm	10,000
캐릭터 목각볼펜 (인쇄도)			500	링팬치손잡이 비닐백		30*40	500

37

티켓 세일즈 계획



▶ 티켓정책 및 목표

티켓오픈 일자 : 2014. 3. 6(목)

공연장	공연명	티켓가격			공연 횟수	목표 좌석점유율	목표 유료객석율
		R	S	A			
대극장	해들 품은 달(국내)	55	45	35	3	90%	70%
	백베스(폴란드)	40	30	20	2	70%	50%
	넷 넷(러시아)	40	30	20	2	70%	50%
소극장	메직더스트(프랑스)	20			3	90%	70%
	왜 왜 질문맨 (한일공동기획)	15			3	90%	80%
	수궁가(국내)	착한티켓			2	80%	-
	세상을 웃기는 꿈 -용알스 (국내)	20			3	90%	80%

38

티켓 세일즈 계획



▶ 기본할인율

품목	할인율
조기에매	30%
학생할인(초.중.고)	30%
단체 할인	20%~5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의정부예술의전당 유료회원	30%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료회원	10%
직원할인	50%

39

티켓 세일즈 계획



▶ 이색 티켓

절대티켓(전 공연 관람)	10만원
----------------------	-------------

제13회 의정부 국제음악축제는 UIMTF
할인심안권장 (₩100,000)

의정부국제음악축제는 13회
2024. 5. 12(일) ~ 18(일)

NO. _____

【유지할 해를 품은 달】 5.12(일) ~ 5.13(월) 19:00 ~ 21:00
【베르디스피】 5.13(월) ~ 5.14(화) 19:00 ~ 21:00
【베이스】 5.14(화) ~ 5.14(화) 19:00 ~ 21:00
【베를린의 밤】 5.14(화) ~ 5.14(화) 19:00 ~ 21:00
【수공예】 5.15(수) ~ 5.15(수) 19:00 ~ 21:00
【새로운 시작】 5.16(목) ~ 5.16(목) 19:00 ~ 21:00
【꽃 피는】 5.17(금) ~ 5.17(금) 19:00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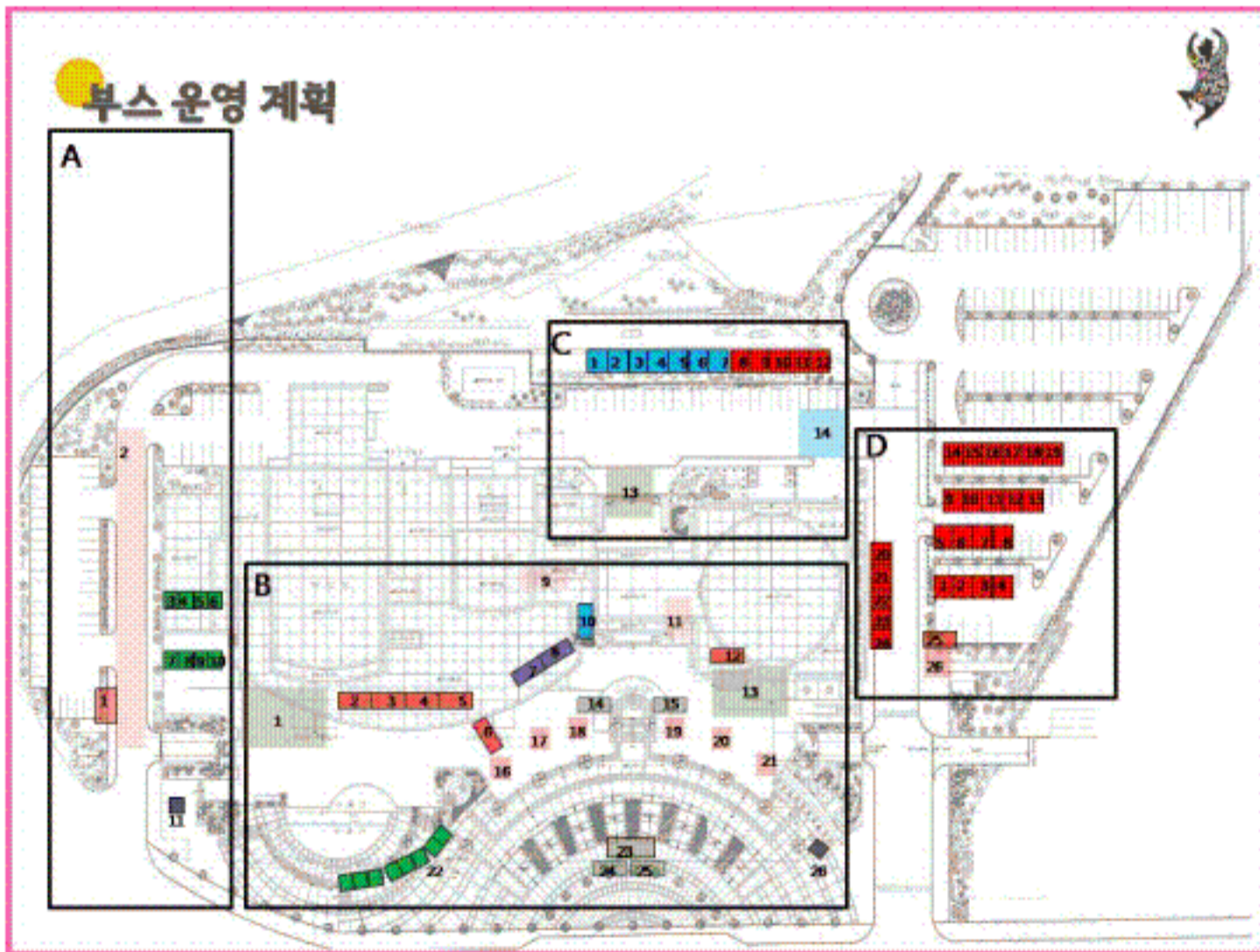
www.uimtf.or.kr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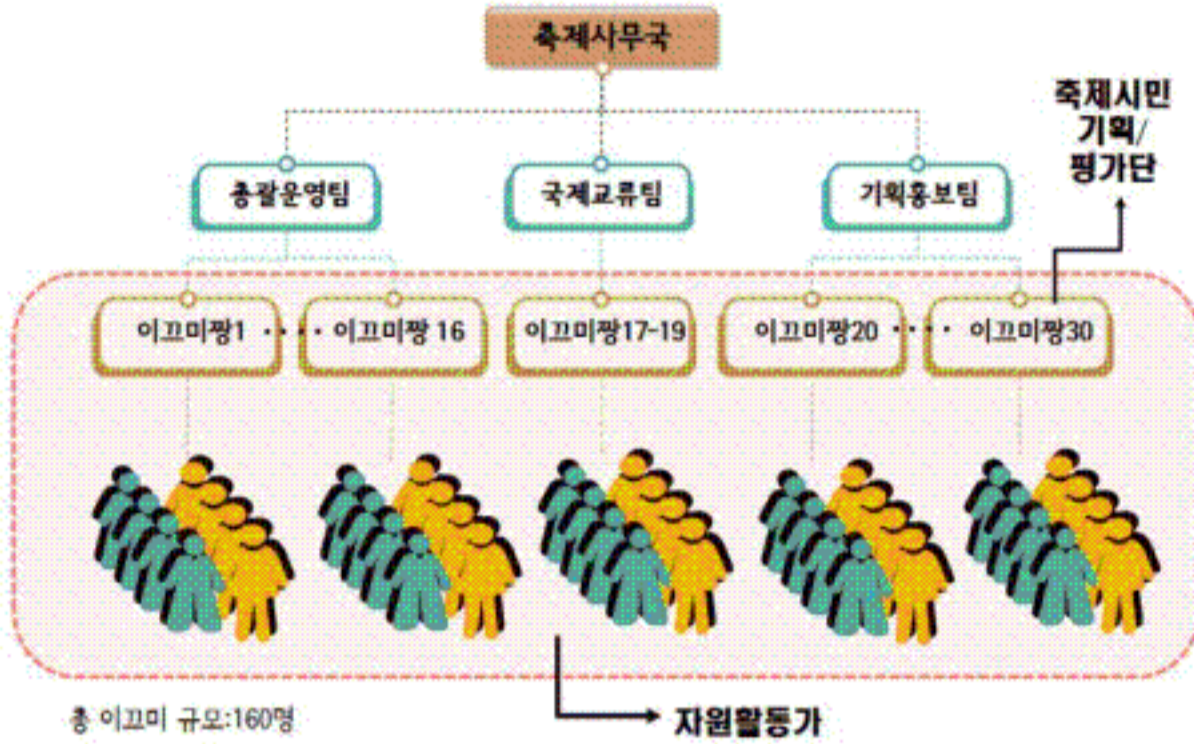
IV

축제 운영 계획

- I. 부스 운영 계획
- II. 이끄미 운영 계획
- III. 축제공간 운영 계획
- IV. 주차관리 운영 계획
- V. 안전관리 운영 계획



이끄미 운영계획



43

축제 공간 운영계획



44

주 행사장



주차공간 운영계획



안전관리 운영계획



일자	주요 행사 및 특징	예상 방문객 인원	비고
5/09 (금)	개막작(20:00) 공연	약 1,000명	
5/10 (토)	야외 공연 및 축제 개막(12:00~22:00)	약 35,000명	보건소 운영 (12:00~18:00)
5/11 (일)	야외 공연 및 체험행사	약 30,000명	소방소 119 구급대 (12:00~18:00)
5/12 (월)		약 1,000명	의료 자원봉사자 (13:00~18:00)
5/13 (화)	10:00~16:00 : Schoo week 어린이 공연 및 주제관, 찾아가는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어린이 방문객 집중 예상	약 2,000명	의료 자원봉사자 (10:00~18:00)
5/14 (수)		약 2,000명	의료 자원봉사자 (10:00~18:00)
5/15 (목)	16:00~24:00 : 야간 영화상영으로 가족단 위, 직장인, 학생 등 성인 방문객 예상	약 2,000명	의료 자원봉사자 (10:00~18:00)
5/16 (금)		약 2,000명	의료 자원봉사자 (10:00~18:00)
5/17 (토)	해외공연, 심포자엄, 야외공연	약 35,000명	소방소 119 구급대 (12:00~18:00)
5/18 (일)	해외공연 및 야외공연, 체험행사 폐막식(송소리, 장기하와 얼굴들)	약 40,000명	보건소 운영 (12:00~18:00)
총 방문객 예상 인원		약 150,000명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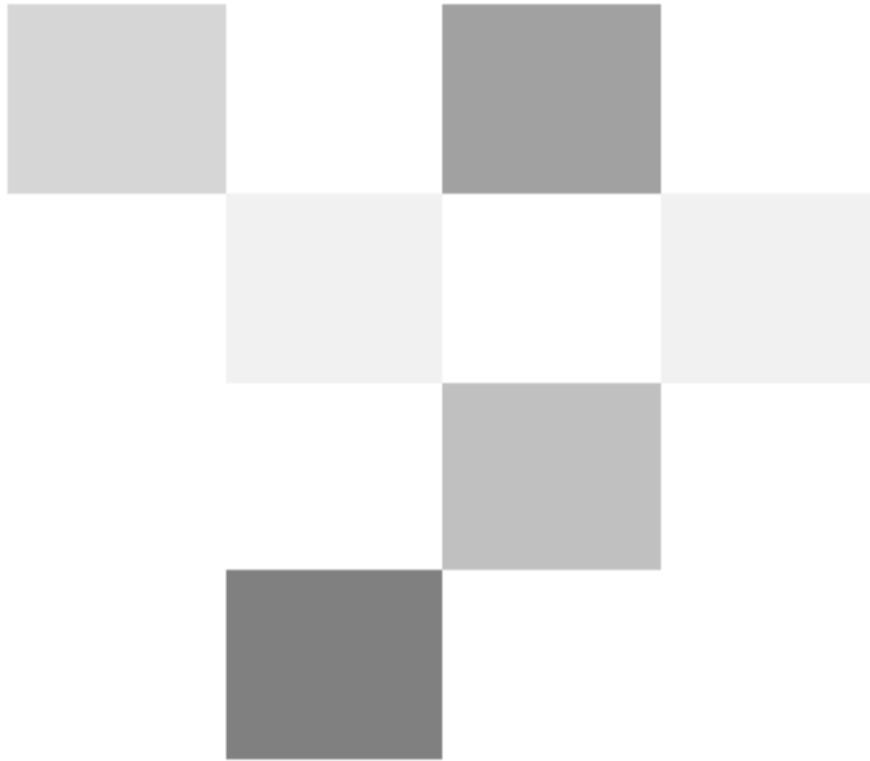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야외공연 및 야외행사가 취소되어

축소 진행되었습니다.



발제1 |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 융합

: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와 축제

김소연 연극평론가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 융합

: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와 축제

김 소 연_연극평론가

1. 들어가며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 있다면 '좋은 작품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술의 본래적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매진하는 이유는 이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 신념이 그대로 투명하게 현실에서 작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작품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거나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절망하거나이다. 작품성과 대중성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예술성과 축제성에도 그대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면 축제가 성공하리라는 믿음, 그러나 현실은 좋은 작품과 성공적인 축제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고군분투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이라는 주제 역시 그러한 고군분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좋은 작품을 많은 관객들이 즐기는 것. 예술을 업으로 한다면 이것 말고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러나 이 투명하고 강고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성, 대중성, 예술성, 축제성은 그렇게 명료한 것들이 아니다. 우선 뛰어나게 탁월한 작품이 아니라면 모두가 합의하는 '좋은 작품'은 없다. 뛰어나게 탁월한 작품조차도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축제성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흔히 성공적인 축제라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 많은 군중이 모여 있고, 일상이 정지된 일탈의 공간이 떠오른다. 그러나 공연예술축제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거리극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거리극 야외극을 테마로 한 축제들이 생겨나고 공연예술축제의 한

세션으로 거리극이 늘어나기도 한다.

축제, 축제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기대는 여전히 축제를 전통사회의 세시풍습의 역할과 양태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축제들이 메트로폴리탄이 아닌 중소도시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전통사회의 특징, 지역성, 공동체성 등등을 작은 도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사회의 구조는 이미 변화했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달라져 있다. 이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물량을 투입하여 일상을 정지시키는 과정이 기획된다. 그것은 곧 축제의 예산으로 연결되고 공공기금이건 민간자본의 후원이건 어떠한 형태로든 투여된 예산 대비 산출을 입증해야 한다. (산출은 대부분 집객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메카니즘의 작동에서 정작 축제가 내걸고 있는 테마는 미로에 빠지거나 실종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 이라는 테마 역시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축제의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그러나 '축제' 라는 이름으로 기획되는 예술행사들이 그러한 '일탈의 공간'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예술축제들의 경우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리극, 야외극이 아닌 이상 일상의 정지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달리 말하면 극장이란 항상 일탈의 공간이거다. 근대이래 블랙박스의 극장은 현실을 지우고 무대 위에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물론 축제란 일상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이 정지되고 삶의 공간이 지워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성' 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명료한 것이 아니다. 어떤 권위가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자가 많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확증될 수 없는 불안정함에서 예술은 시작된다.

그러나 눈을 돌려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축제들을 진단해본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예술성, 축제성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한국현대공연예술이라는 구체적 토대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 축제가 공연예술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축제의 비일상성에 주목하다보니 공연예술계라는 지속적 흐름을 갖는 구조와의 연관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를 살펴보면 '축제' 라는 계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는 공연예술의 문제적 지점의 물꼬를 이룬다.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이라는 주제에서 이 점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2. 20세기 한국현대공연예술과 축제

한국전쟁의 피해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하는 60년대는 한국현대예술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축제는 공연예술인프라가 취약한 속에서 집중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 예술현상을 이슈로 부상시키고 관련 창작활동이 대중적 접점을 넓혀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축제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술성, 축제성이란 어떤 고정된 가치나 양태가 아니라 당대 공연예술의 지형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개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축제라고는 하지만 그 양태는 다양하다. 단발의 예술행사로 그친 경우도 있고 십 수년을 훌쩍 넘어 역사를 쌓아가는 축제들도 있다. 순전히 민간의 자발적 힘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온 축제가 있는가 하면 국가 예술정책에 따라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축제들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공연예술축제들은 2000년을 전후로 지자체와 국고지원으로 만들어진 축제들이 대부분이다. 그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단발성 예술행사

1960~7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이후 현대공연예술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전쟁 후의 피폐함은 여전하여 공연예술인프라 전반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위의 세 축제는 단발성 예술행사에 가깝다.

1964년 국립극장 셰익스피어탄생 400주년기념 축제

1973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축제

1973/74년 극단 에저포 젊은연극축제

셰익스피어탄생 400주년기념 축제에 대한 여석기 선생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활동하던 극단은 다 셰익스피어 한 작품씩 들고 나와서 공연했어요. ‘햄릿’ 부터 ‘리어왕’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까지 다양한 작품이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대에 올랐죠. 학자들은 작품 번역과 세미나, 강연 등을 도맡았고요.” 당시 셰익스피어페스티벌은 관람객 수가 5만 명이 넘을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셰익스피어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었다는 점, 당시 막 창단하고 있던 동인제극단들이 국립극장 무대에서 본격적인 연극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등에서 축

제의 성황을 넘어서는 역할을 한다.

1974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축제는 12주동안 12개국 백42회의 공연으로 짜여진 매머드 축제였다. 물론 단발성 행사이긴 하지만 행사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면면에서 “건국 초유의 대음악 잔치”라 할 만큼 야심찬 기획이었다.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뉴욕필하머니, 일본 NHK교향악단, 영국 로얄발레단을 비롯 정경화 등 재외 음악인들까지 대거 초청된다. 개관예술제 사무국장으로 이 축제를 총괄했던 이상만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이 축제를 통한 관객동원 목표가 50만 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서울인구 5백만 명의 10%였고, 5만 명으로 추산되었던 전체 클래식음악 인구의 10배나 되는 수치였다. 결과적으로는 27만 명이 개관예술제를 다녀갔으니 당시로서만이 아니라 지금에 견주어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한다. “서두른 셈 치곤 성공적” “세계적 예술시장 면목 보여” “공연장 시설, 관중 동원 능력 등 외지들 호평” 등등의 평가가 있었다.(1978년 7월 4일 경향신문)

축제의 성공이 규모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극단 에저또가 주최한 젊은연극제는 80석 남짓의 에저또 소극장에서 치러진 축제로 관객들은 회당 100명 정도였다. (비록 절대적 수치는 작지만 극장의 규모에 비하면 집객에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축제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지 않은 공연작품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기성극단의 흉내에 자족하는 연극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테마, 몸짓, 연출수법에서 기성연극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의욕을 충분히 보였다는 평가를 덧붙인다.

“완성된 연극을 이들이 공연했다면 ‘젊은연극’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극단 에저또는 자신들의 극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극언어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왔지만, ‘젊은연극제’라는 축제의 장은 개별 작품의 성취를 넘어 현대연극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실천을 공연예술의 문제적 현상으로 이슈화하였다. 축제의 운영에서도 연기, 연출, 스텝 풀제를 만들어 개별 집단의 활동을 넘어서는 세대적, 미학적 연대를 꾀했다.

2.2 예술지원으로서의 예술축제

대한민국음악제,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부용제, 대한민국국악제

1970년대 후반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축제들이다. 앞의 단발성 예술행사와 달리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축제의 이름도, 운영주체도, 운영방식도 공연예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다.

대한민국연극제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연극제는 창작 초연 희곡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통해 참가작을 선정하고 축제 참가작들 중에 부분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연 형식으로 치러졌다. 경연이라고 하지만 창작극발굴이라는 미션을 경유한 민간단체의 연극활동에 대한 창작지원의 역할이 컸다. 대한민국연극제는 70년대 연극계 호황이 지나치게 번역극에 쏠려있던 현실에서 창작극활성화라는 미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필요성으로 만들어지고 계속될 수 있었다. 윤조병, 윤대성, 이강백, 오태석 등이 대한민국연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희곡작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연극제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켜왔다. 실연심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참가극단은 기성 주류 극단들이 대부분을 이루면서 운영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희곡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도를 수용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습적인 작품들을 양산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또 80년대를 경유하면서 70년대 번역극 일변도의 연극계와 달리 젊은 극단들을 중심으로 창작극 공연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대한민국연극제의 공적 지원을 통한 창작극 활성화라는 미션 또한 그 역할이 점점 축소되었다.

변화하고 있는 공연계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연극제는 주최, 진행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제6회(1982년)부터 문예진흥원이 주최하는 관주도에서 벗어나 한국연극협회와의 공동 주최로 바뀌었고, 제11회(1986년)부터 한국연극협회 개최로 바뀌면서 민간주도 행사가 되었다. 제14회(1989)부터는 창작 초연 희곡만 심사를 거쳐 참여했던 데에서, 그해 공연작 중 공연심사를 통과한 연극도 연극제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공연심사 병행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21회(1997년) 때에는 IT서울총회와 연계하여 세계 120개국에 참여하는 국제연극제로 치러졌다. 이후 서울국제연극제로 규모를 확대해오다가 2001년 서울무용제와 통합하여 탈장르 공연예술제를 지향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한국연극협회와 한국무용협회의 주최로 개최되게 된다. 2003년부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별도의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주최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는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서울연극제는 독자적인 연극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는 별개의 축제로 다시 치러지기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있다.

2.3 예술인들의 자생적 예술축제

1988년 전국민족극한마당

1989년 춘천마임축제

1989년 거창연극제

1998년 독립예술제(서울프린지페스티벌)

80년대 후반 시작된 이 세 축제는 대한민국연극제 전국연극제가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민간주도의 축제로 출발하여 성장한다. 민족극, 마임 등 축제의 테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주류 연극계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장르들이다.

88년 개최되었던 제1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은 주최자 자신들도 놀랄 만큼 큰 성황을 이루었다. 70년대 시작된 마당극운동이 8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연극운동단체들이 활동할 만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지만 여전히 연극계라 일컬어지는 제도와는 무관하게 활동해왔다. 물론 80년대 초반 극단 연우무대를 중심으로 마당극운동의 작업들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이는 마당극운동 전체에서 부분적인 활동이었다. 특히 이 시기 민족극운동은 현장이라 일컬어지는 연극제도 밖에서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제1회 민족극한마당은 그간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연극계 밖의 연극운동, 때로는 연극운동이라는 자각보다는 민주화운동, 계급운동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연극운동으로 드러내는 자리였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성황은 87년 6.10민주항쟁 이후 사회적으로 고조된 민주화 열기도 한몫을 한 것이지만 말이다. 제1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을 계기로 마당극운동 단체들은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를 발족하고 조직적 틀을 갖춘다. 이후 지금까지 전국민족극한마당은 전국민족극운동협회 주최로 매해 열리고 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전신인 독립예술제는 98년 마로니에 공원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98독립예술제'는 소수의 마니아 문화라고 인식되던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대학로 한 복판에서 대규모 축제를 벌이고 대중들은 예상치 못한 열띤 반응을 보였으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성공한다. 90년대 인디음악 등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청(소)년문화, 마니아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분방함은 단지 트렌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예술의 새로운 범주를 제기한다. 90년대 문화담론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세대들은 순수/참여의 이분법을 가로지르면서 '소수문화'라는 새로운 영역

을 주장해왔다. '소수문화'의 '소수성'은 청(소)년문화, 마니아문화, 아줌마문화 등 지배적 문화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개념이다. '98독립예술제'는 이항대립적인 개념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소수성'에 대한 자각, 그것을 창작의 에너지로 삼겠다는 자기공정과 이 새로운 세대들과 이들의 작업이 갖는 사회문화적 에너지에 주목한 문화 기획 그룹의 연대라 할 수 있다. 독립예술제는 이후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정체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독립예술, 젊은예술, 다원예술 등 우리사회 비주류예술과 청년문화의 결합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의 성장과 비주류 장르의 약진

정책적 역할이든 민간의 자발적인 표출이든, 공연예술 인프라가 협소했던 우리 사회 현실에서 축제는 한시적인 기간, 한시적인 공간에서나마 새로운 창작자들, 새로운 작품들을 예술계와 대중에게 소개하는 거의 유일한 장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는 이전 시기의 축제의 양태나 역할과는 완전히 새로운 전개를 보여준다. 물론 이는 축제 그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2000년대 공연예술의 지형변화와 맞물리는 것이다.

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된 축제의 폭증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공연예술축제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그 수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공연예술축제의 대부분은 10회~15회 미만이다. 공연예술축제의 수만이 아니라 규모에서도 해외공연팀들이 포함되는 국제 규모의 축제들이 대부분이다. 처음 시작부터 인터넷서널로 출발하나 기존 축제들의 경우에도 국제 규모 축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축제가 공연예술계의 다양성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규모의 축제들이 늘어나면서 좀 더 다양한 권역의 해외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고 점차 소개되는 작품들도 국제 공연예술계의 흐름에 시차 없이 근접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제 규모의 축제들에서 유럽의 작품들이 다수이며, 다른 권역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유럽의 평가를 거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축제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권의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졌다. 축제 난립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매우 다양한 공연예술의 경향들, 작가들, 작품들 등 동시대 공연예술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축제의 성장에 따른 변화이다.

공연예술 다양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축제의 영향은, 공연예술축제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테마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가 확대되면서 축제 마케팅의 측면에서나 펀드레이징의 측면에서나 축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특성화였다.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축제들은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축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춘천마임축제, 과천한미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안산거리극축제 등은 공연예술계의 지형에서 비주류 장르를 테마로 성공적인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비주류 장르들은 창작자군도 협소하고 공연수도 적고 관객층도 두텁지 않다. 그러다보니 일상적인 공연공간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들이다. 처음 이 축제들이 이러한 테마를 표방했을 때 축제의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회의적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비주류 장르 테마의 축제들이 도리어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주류 장르보다 일상을 벗어난 일탈이라는 축제성과 잘 어울리면서 매우 풍성한 축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춘천마임축제의 도깨비난장일 것이다.)

축제 테마의 다양화가 공연예술계의 다양성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비단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의 소개에만 머물지 않는다. 축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가,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터운 작가군과 작품군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축제의 성공만으로 그러한 저변의 확대가 가능하지 않다. 근래 공연예술축제들이 축제 프로그래밍만큼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작가발굴, 제작 등이다. 또 작가, 극단의 성장을 위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춘천마임축제가 도깨비어워드라는 작가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임의집 등 상시공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축제 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으로 작품을 개발하고 이후 공연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있는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페스티벌 이외에 공간운영, 상시 공연 기획 등으로 활동의 장을 넓히고 있는 것, 포스트프린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산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빅보이프로젝트 등은 이들 비주류 예술활동의 창작역량을 두텁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들이다. 단적인 예로 신진창작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장르에서 전문적인 작가/창작집단으로 진입하는 것보다 이들 비주류 장르에서의 진입이 훨씬 수월하다. 창작자 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축제가 작가발굴, 제작, 유통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쏟으면서 비롯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주류 장르를 표방하는 축제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변화의 경향성은 다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밀양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등 지역 기반 축제이거나, 다른 하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립극장페스티벌과 같이 여타의 공연예술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규모를 갖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테마의 다양성의 경향과 연결된다 할 수 있는데, 공연인프라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축제와 같은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관객층의 수요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우, 수송대라는 관광지로 축제장소를 옮기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축제 개최 시기를 휴가철과 맞물리게 함으로써 관광과 축제를 연결하는 축제성을 만들고 있다.

후자의 축제성 역시 일상적 공연프로그램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연극과 같은 주류 장르는 여타의 비주류 장르들에 비해 훨씬 풍부한 창작층과 작품군이 존재하고, 따라서 프로그래밍이 관건이다. 즉 얼마나 엄선된 '좋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예술감독의 '선택' 만큼이나 아니 그 선택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한 예산이 뒷받침되느냐도 관건인 것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나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이 처음 출발할 당시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주목되는 작품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여타 축제들과 비교하여 월등한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지난 해부터 국립극장은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은 폐지하고 특정 기간을 두지 않고 우수 해외공연을 소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4. 자원과 조직의 불안정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10년을 지나면서 공연예술축제의 성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외적 성장 자체도 일정한 정체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 이제 부족한 예산과 조직에도 불구하고 기획력과 헌신으로 축제를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공연예술계에서 축제의 역할, 축제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원의 불안정성이다. 단적인 예로 성공적인 공연예술축제로 꼽히던 춘천마임축제는 수년 동안 관광축제라는 정체성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오면서 축제의 프로그래밍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금의 자원이 축제의 성격을

그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마임축제의 예는 지금 공연예술축제가 놓여있는 기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가 수적으로나 규모에서나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비단 공연예술 지원의 확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 규모의 공연예술축제라 하더라도 그 재원에는 중앙정부의 재원만큼이나 혹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지방정부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축제마다 그 성격이 다양하겠지만 예술지원을 표방하건 아니건 지방정부 재원조성의 가장 중요한 동력을 경제활성화에 있다. 최근 '문화도시' '창의도시' 담론이 광풍처럼 지자체의 정책 테이블에 몰아닥쳤던 이유는 문화와 예술로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사례들이 소개되면서부터이다.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축제 예산이 입안되고 지역의회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경제적 관심인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이 커뮤니티로 옮겨가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중시한다.

원론적으로 성공적인 공연예술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갖는다.(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정부, 의회, 지역사회와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 2012년 7월에 있었던 안산거리극축제 평가토론회 자료를 보면 이 축제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경제적 산출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비단 안산거리극축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0년 9월 월간 한국연극특집좌담 "공연예술축제 진화의 방법을 모색한다"에 참여한 축제 예술감독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축제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안정성의 문제는 축제 재원의 상당부분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축제 정책의 비일관성, 축제의 미션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었다.

공연예술축제들이 '공연예술'이라는 정체성, 미션에서 흔들리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집객이다. 중앙정부 재원에서는 경제활성화가 직접적인 미션으로 부과되지 않는 반면, 집객 즉 관객참여는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공공기금 사업의 가장 현실적인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평가기준이다. (평가결과가 다시 펀드레이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가는 단지 사후적 참조 의견이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연예술축제에서 비대화되고 있는 프린지 프로그램들은 바로 집객이라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축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축제 재원의 불안정성은 항상 당면한 문제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중앙정부이건 지방

정부이건, 예술지원이건 관광활성화이건 공공재원에 거의 백퍼센트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의 불안정성은 합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계속 성장추세에 있던 재원의 규모도 최근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정부 재원은 그러한 변화가 뚜렷한데, 대표적인 공연예술축제였던 서울국제연극제는 2011년부터 한국공연예술센터로 주최가 바뀌고 난 후 예산 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경제적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흐름을 볼 때 앞으로 축제만이 아니라 공연예술 지원 규모는 축소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예산의 불안정성은 전방위로 놓여있다.

이러한 예산의 불안정성 문제를 놓고 축제 간 협업이 하나의 타개책으로 제시되고 실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제작이라던가 해외 공연단에 대한 공동 프로그래밍이 그렇다. 앞서 말했듯이 공동제작은 축제가 테마로 앞세우고 있는 마임, 거리극 등 비주류 장르 창작자들의 육성에서 제작지원은 물론 유통구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축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공연단 초청비의 경우 공동 프로그래밍을 통해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동제작, 공동 프로그래밍이 증가하면서 각 축제 고유의 프로그래밍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큰 해외작품들이 공동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게 마련인데, 축제의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이 해당 축제만이 아니라 여타 축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공연예술 지형에서 축제가 담당하던 다양성 확보와 확대는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다.

5. 예술성과 축제성, 규모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재원과 조직의 불안정성은 현재 공연예술축제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들의 성장은 축제의 역사로나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에서나 주목되는 현상인데,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지속성에 있기 때문이다.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축제들의 지속성이 마련되면서 공연예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지금 겪고 있는 재원과 조직의 불안정성은 공연예술축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에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배면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공연예술축제들이 당면한 예술성과 축제성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는 공연예술축제의 자기 정체성이 단편적

인 축제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고민이다.

성공적인 공연예술축제들에서 예술성과 축제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깜짝 놀랄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서 축제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세계적인 공연을 초청한다고 해서 공연의 성공이 축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특히 공연예술의 축제성이란 야외극이나 거리극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상의 공간이 전복되는 그러한 축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극장은 항상 일상을 정지시키고 우리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하는 '일상의 공간'이다. 극장의 특별함은 우리의 일상 안에 바로 그러한 일상이 정지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아닐까. 공연예술축제의 축제성은 그러한 극장의 특별함을 좀 더 많이 이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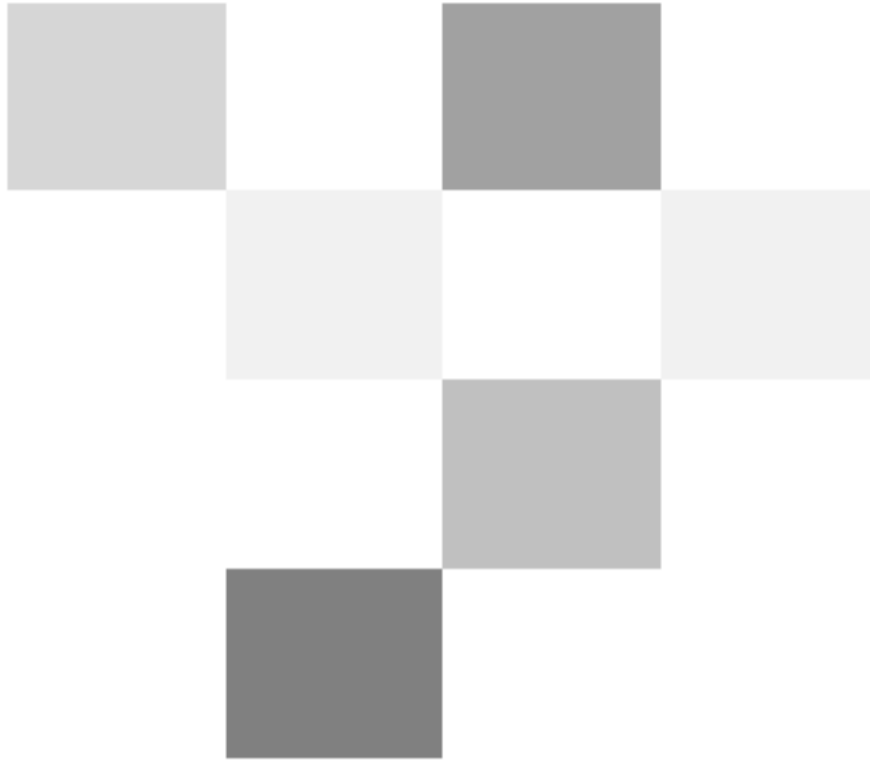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 공연예술계는 말 못할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공연예술축제들이 본격화되는 지금 많은 축제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되는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최근 고양문화재단에서 있었던 '뷰티풀민트라이프'가 축제 전날 전면 취소되는 사건은 공연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절차상으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와 별개로 축제가 전날 바로 취소되었던 그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공연예술과 축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몇몇 정치인의 여론몰이와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의 축제와 예술에 대한 몰이해 때문일까. 그들의 몰이해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연예술축제들이 사회에 대해 설득했던 '축제성'이 한바탕의 여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동안 공연예술축제들이 규모의 성장을 위해 '축제성'에 대한 몰이해 혹은 편향을 조장해왔던 것은 아닐까.



김소연

연극평론가,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극원 강사
「연극평론」, 「문화예술」 편집위원
전) 웹진 Weekly@예술경영 편집장
전) 「컬처뉴스」 편집장
전) EBS 〈한영애의 문화한페이지〉 고정 패널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발제2 | 음악극, 국제성,
그리고 한국적 창작의 과제

허순자 서울예술대 교수

음악극, 국제성, 그리고 한국적 창작의 과제

허 순 자_연극평론가, 서울예술대 교수

음악극의 개념과 축제의 실존

용어 자체가 암시하는 광의(廣義)의 해석 가능성과 그것이 품어내는 확장된 범주의 장르들로 인해 음악극(music theatre)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통일된 진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페라로부터 뮤지컬을 비롯한 음악, 혹은 음악극의 다양한 미학적 개념과 형식, 방법론을 수용한 복합장르들마저 아우르는 가운데 학문과 현장의 개별적, 자의적 구분과 그에 따른 의미 부여가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극과 음악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발전해온 연극사의 면면들로 인해 더욱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음악(melos)'을 드라마의 6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질이 아니더라도, 코러스의 출현과 라이브 연주는 그리스비극의 중요한 음악적 전통이었다. 로마회극, 중세극, 셰익스피어극은 물론, 오페라를 탄생시킨 이태리 르네상스기의 코메디아 델 라르테 외, 공연예술 발전의 분수령을 이룬 많은 혁신들 속에서도 연극은 언제나 음악과 함께 했다. 현대 뮤지컬의 초기 형태들로 간주되는 뮤직홀, 오페레타, 민스트럴쇼, 버라이어티 등은 차치하더라도, 음악이 극적구성에 절대적임을 직언하는 19세기 멜로드라마, 바그너의 뮤직드라마에 이르면 연극과 음악은 더욱 긴밀히 몸을 섞어 음악극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켰다. 더구나 후발 주자로서 지난 한 세기 가장 대중적이고도, 영향력 있는 '산업형' 음악극 장르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뮤지컬의 독보적인 위치는 그것을 음악극과 동일화시키는 경향마저 띄게 됐다.¹⁾

1) 예를 들면, 뮤지컬 라이선싱의 대표적 에이전시 기능을 수행하는 Music Theatre International은 뮤지컬이 곧 그들이 말하는 음악극임을 주지하고 있다. www.mtishow.com 참조. 그밖에 음악극 관련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는 예일드라마스쿨, 뉴욕대, 센트럴스쿨 오브 스피치 앤 드라마 등 다수의 영미권 대학들 역시 음악극을 커리큘럼에서 뮤지컬로 제한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현상의 가중은 심지어 구글 백과사전인

한편, “음악극은 음악과 극의 줄거리가 하나로 결합되어있는 공연으로, 연극, 신체극, 오페라, 뮤지컬, 멀티미디어 공연, 한국형 창작극 등의 장르를 포함한다 음악을 기본 요소로 하는 모든 공연예술 장르를 소개” 하며,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넓은 의미의 음악극 축제를 지향하고자”²⁾ 라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에 대한 보다 유연한 사고로 기존 관습과 통념에 도전한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 중반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국내 유수의 음악극축제들, 즉 음악극을 진지한 고전음악의 틀거리에 담아온 통영국제음악제나 뉴욕국제음악극제를 모델로 뮤지컬을 표방해온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등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단 장르간의 경계가 무너진지 오래요, 이질적인 분야들 간의 결합을 독려하는 21세기 융·복합문화와 결을 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제공되는 공연들은 음악극이되, 음악극 이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얼핏 음악극이라 볼 수 없는 성격의 작품들마저도 축제의 탄력적 프레임 아래 수용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장점은 단점으로 뒤집히는 모순도 발생한다. 말하자면, 음악극축제라는 깃발아래 이질적인 장르의 작품들이 혼재하다보니 행사 고유의 정체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즉, 음악극제로 이름 하지 않은 공연예술 축제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곳에서 갑자기 음악극의 옷을 갈아입고 나타날 때(혹은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음악극축제의 변별력은 실추된다. 음악극 고유의 정체성 대신 무늬만 음악극인 레퍼토리로 각인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덕이자 동시에 딜레마일 수 있는 이러한 대척점에 서있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이 이중의 실존에서 과연 어떤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성에 대한 열망과 수사적 측면

음악극평론가 폴 프라이스와 윌리엄 에버레트는 동시대 음악극의 거대한 조류로 대두된 메가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를 국제성(화)으로 요약한 바 있다.³⁾ 웨버, 매

위키피디아에서조차 'music theatre'를 치면 바로 'musical theatre'이 나오므로써 양자의 동일시는 물론, 전자의 엔트리 부재라는 심각한 결함마저도 보여주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Musical_theatre 참조.

2) http://www.umf.or.kr/html/subo/sub_ol.php 참조.

3) Paul Price & William A. Everett, 'The Megamusical: Creation, Internalization, and Impac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Musical,' 2nd ed., William A. Everett & Paul R. Laird ed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250-69 참조.

킨토시가 주도하고, 디즈니가 그 뒤를 따라나선 블록버스터 음악극의 지배적 경향은 그러나 단순히 메가뮤지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음악극 전반은 물론, 거의 모든 동시대 문화현상에서 국제성의 강력한 경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칠게나마 그 배경을 되짚어보자면, 전후 냉전시대의 긴장과 불안을 힘겹게 극복하고 다다른 20세기 후반의 정세는 탈근대주의 사상을 등에 업고 문화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지구촌의 '평평한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다.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무한 경쟁의 시대는 글로벌리즘을 성장의 보편적 원리로 주입시켰으며, 그것은 문화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교류를 핵심가치로 내세운 공연예술축제들이 지구촌 각지에서 유행처럼 탄생하기 시작했다. '88서울국제올림픽게임을 분수령으로, 1990년대 서울에서 개최된 공연예술 관련 국제 행사들은 축제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에 불을 붙여주었다. 때마침 실시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축제들은 공연예술 외에도, 전통, 관광, 토속, 지형, 먹거리, 특산물 등으로 성급히 콘텐츠를 채우기도 하면서,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너도나도 국제라는 부속 타이틀을 달고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국제라는 수사의 내실은 부실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명분에 그친 그들의 국제성은 의혹의 대상이었으며, 절망이 아니라 실망임에 틀림없었다. 돌이켜보건대, 세계를 놀라게 한 스피디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 첨단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에 이미 그 위상을 검증했을 뿐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글로벌리즘이 일상화된 21세기 문화 강국에서 대체 왜 우리의 축제들은 그리도 국제성(화)를 열망해야 했던가,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시대적 조류였던가, 역시 국제성의 명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적잖은 세월 섬겨온 그 어휘의 당위성에 이제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객관적인 반추를 소망하는 듯하다. 이는 다만 소수의 외국작품들을 불러다 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만은 아니리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민망함이, 내부적 자성으로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흔히 축제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국제성의 개념은 해외작품의 초청이라는 선에 머문다. 우수 해외 작품들이 지닌 미학적 수월성이 당연히 국제성을 담보한 것임을 전제할 때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국제성이 호혜(互惠)의 원칙이 준수되는 쌍방향의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초청에 그치는 축제는 그 타이틀을 배반하는 것이다. 한 작품을 초대함으로써 시작된 관계는 유기적이요,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미래의 또 다른 작품들의 초청과 역(逆) 초청으로, 공동제작의 파트너십으로 구축되는 역동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방향의 관계구축으로 성립되는 국제성은 또한 축제가 담보하는 자국 작품들이나 자체제작물의 마

켓이나, 중개(intermediary) 역할로 그 가능성을 다변화시킬 수도 있다. 사실 의정부음악극 축제가 그간 소개한 적잖은 수의 우수 해외 공연들만으로도 이 행사는 '국제' 라는 타이틀에 나름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를 이룬 단체들(제1회 때 초청했던 러시아의 타강카극장의 〈넛 렛〉을 금년의 폐막작으로 다시 초대할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이나, 자체제작 공연 〈이사람의 억척가〉(2013, LG 아트센터와 판소리만들기 자와 공동 제작)의 해외공연(프랑스와 루마니아로 한정되긴 했으나)은 바로 상호 교류의 개념에 준하는 경우로서 축제의 국제성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모델이다. 반면, 마켓, 중개 기능의 부실은 제한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축제운영의 미진한 생태환경과 밀접히 관련돼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시민축제로서 거듭나는데 나름 성공한 것이 지난 몇 년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제성의 부진을 드러내듯, 초청작들의 전반적 수준이나 축제 자체의 경쟁력이 크게 신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간 축제가 예의 관심을 표명하는 플랫폼 기능의 강화는 축제가 소망하는 진정한 국제성에 부응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

창작의 과제와 길 찾기

글로벌리즘이 세계를 강타하던 2000년대 초·중반 경, 그에 대한 반 기류 정서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글로컬리즘이다. 흔히 문화적 맥락의 반짝하는 시류어인 버즈워드들(buzzwords)이 그럴듯,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 풀 꺾인 느낌이다. 허나 글로벌리즘의 위협적 존재감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상승기류를 떠난 초기 글로벌리즘의 위세로 말미암아 개별 국가·권역 고유의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은 1980년대에 이미 첫 위기를 맞았다. 영국의 비평가 고(故) 세리단 몰리는 그의 저서 *Spread a Little Happiness: The First Hundred Years of the British Musical*, 1987)에서 음악극의 대표 주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히트 뮤지컬들을 거론하면서 냉소적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그런 작품들은 관객에게 어느 날 저녁 극장에 간다는 사실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광객-관객에게는 언어장벽도, 공감해야할 문화적 유산이나 교육에 대한 아무런 요구도, 극복해야할 문화적 장애도 없을뿐더러, 극단적으로는 공연이 어떤 특수 문화권에 관한 것이 아닐수록 대중적 어필은 훨씬 더 강력하다' 고 말이다.⁴⁾

4) Judith Sebasta, 'Something Borrowed, Something Blue: The Marriage of the Musical and Europe,' in 위의 책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Musical』, 2nd ed. p. 253 재인용

타자에 대한 인식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知己)이다. 하지만 밖을 향한 성급한 관심에서 우리 안의 고유한 가치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 전문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교수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은 우리문화에 대한 자기반성적 영역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전통문화가 곧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임을 거듭 강조한다. 즉 '한국인이 독특한 발전을 추구할 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과거의 재발견이요, 그것을 현재와 결합시킬 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며,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을 권고한다.⁵⁾ 사실 우리는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그것의 재발견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특히 공연예술계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전통의 현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연극작업들이 주목되기도 했다. 비록 본격적인 문화운동 차원으로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부분적이거나 전통의 가치와 그것의 현대적 정립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통의 재현과 현대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이 야기됐고, 무엇보다 후자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과 이론적 규명에 미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전통의 소재적 발굴, 기술적 재현, 퓨전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전통의 깊은 혼을 우리의 현대적 미학으로 숙성·발효시킨 실로 완성도 높은 고품격 창작은 부진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목표시장과 관객의 니즈, 기대에 민감하게 부응한 공연도 드물었다. 간혹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창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동반되어야 할 유통 기재, 즉 기획과 제작을 이르는 프로듀싱 시스템이라는 하부구조의 기반조성도 위약했다.

이러한 점들에서 메가뮤지컬의 불가항력적 권위가 다소 심기 불편할 지라도 음악극의 발전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는 가이다(It's not the subject, it's the treatment)"⁶⁾ 이라고 한 웨버의 말은 한국의 창작 현실은 물론, 유통에도 공히 경종을 울려준다. 관건은 '어떻게'이다. 작품이 제작되고, 공연되어 마침내 관객에게 보여 지기 위해서는 말이다. 허나 그 어떤 경우든 형식에 갇혀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답은 창작자들의 몫이다. 한편, 과거의 일인 독립제작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외 공동제작 내지 합작으로 이동한 오늘의 뮤지컬 프로듀싱의 세계적 조류가 검증해주듯,⁷⁾ 동반자관계를 이루는 파트너십은 한국적 창작을 유통으로 안내하는

5)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서울: 21세기북스, 2013, pp. 39-42 참조.

6) Price & Everett, 앞의 글, p. 256 재인용.

7) 카메론 매킨토시와 디즈니 씨어트리컬즈가 합작한 <위키드>, D E & M과 중국의 대외문화집단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인 아주연창문화발전유한공사를 통해 한국 라이선스로 전수시킨 <맘파미야>.

실질적 전략이자 믿음직한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콘텐츠로 각국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주거나, 보편적 성격의 하나의 콘텐츠로 삼국의 시장을 동시 겨냥하는 “아시아 원 마켓”⁸⁾의 전략도 목표하는 문화권역과 관객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창작과 유통이라는 점에서 적중률이 높아 보인다. 당연히 상업성을 속성으로 하는 뮤지컬과 순수예술 지향의 창작물 유통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행보는 참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이 진지한 사고와 냉철한 분석과 결합할 때 생기는 시너지효과는 창작에 희망을 보태준다.

음악극, 국제성, 한국적 창작에 대한 질문에 정답은 없다. 논의는 답을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자 탐색일 따름이다.



허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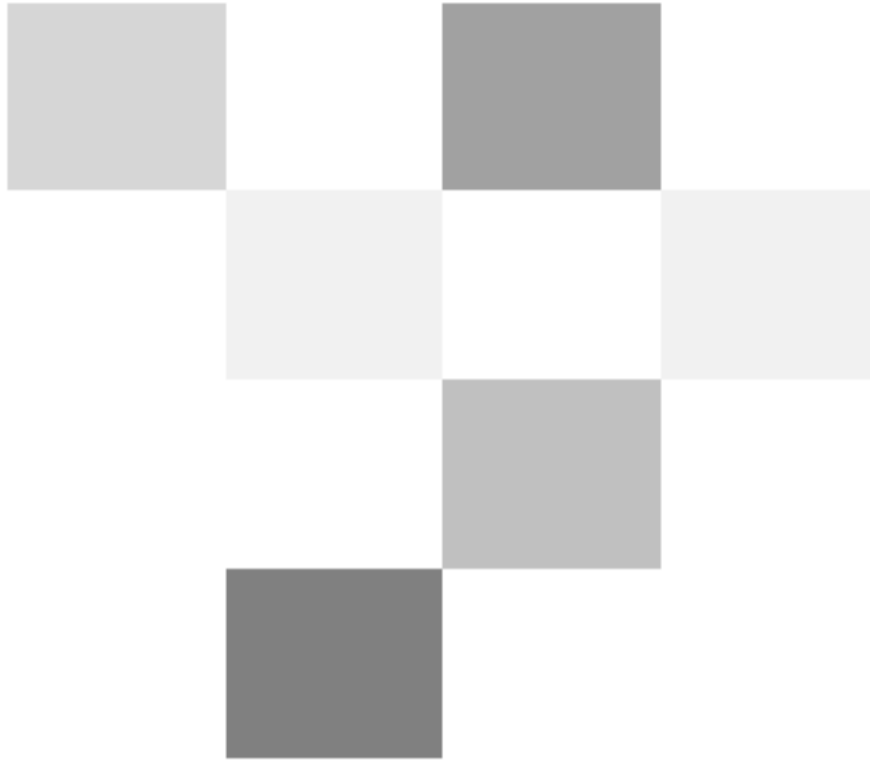
서울예술대 연극과 교수, 연극평론가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이해랑연극상, 차범석희곡상 심사위원
메세토연극제 자문위원

(캣츠)에 이어,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현지화 전략으로 로컬 관객에게 적극 다가간 (김종욱 찾기)의 성공을 상기할 수 있다. 특히 오디뮤지컬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2010년도 브로드웨이와 한국무대에서 선보인 (드림걸즈)에 이어 최근에도 프로듀싱 파트너로 브로드웨이 제작들과 관계 맺기에 주력함으로써 한국 뮤지컬의 성장 동력을 국제시장에 각인시키려는 노력들은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http://www.thestage.co.uk/2013/10/musicals-riding-korean-wave/> 참조.

8) 박병성, “C E & M 중국 사업부 이성훈 부장 - 미숙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한 중국뮤지컬”, 『더 뮤지컬』(2013, 9), 120호, p. 68.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발제3 |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오순환 용인대학교 교수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제13회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Uijeongbu
 International Music Theatre Festival
 2014.5.9 FRI - 18 SUN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원



유연대학교 오송캠퍼스



음악극의 특성



- 개념 : 음악적으로 양식화된 연극
- 내용 : 연극 + 음악 + 무용
- 유형 : 오페라·오페레타, 발레, 뮤지컬, 레뷰, 판소리 등
- 특징 : 음악극은 개방적 '대중예술'이 되기보다는 폐쇄적 '귀족예술'
 - ▶ 몰입 가능한 폐쇄공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관람해야 음악극 이해
 - ▶ 대중들은 일반적 개방공간에서의 보편적 스토리 이야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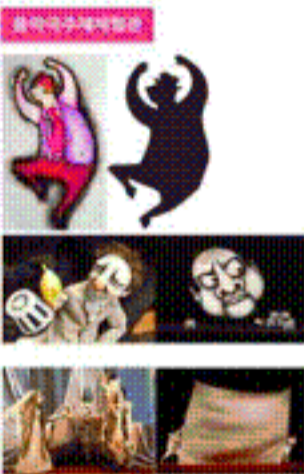
음악극축제가 성공하려면...

1. 문화귀족들의 관심과 참여욕구 극대화
2. 일반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해야 함
- ▶ 현재 의정부의 여건을 종합하면 2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첫 방문에서 만족해야 추억과 향수 형성되고 이후 재방문 및 구전효과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공급과정 : 기획? 프로그램 개발? 여행? 자원봉사? ...
 - ▶ 춘천 마임축제의 '개비'
 - ▶ 가평 재즈축제의 '재즈밴드와 재즈카페'
- 소비과정 : 관람? 체험? 공모? ...
 - ▶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공연 프로그램
 - ▶ 동별·단체별 소속감을 높이는 참여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방향



의정부 음악극축제

시민들이 즐기지 못하면 외지관광객도 즐길 수 없다.



1. **예술하면 괜히 주눅이 드는 대중의 편견 없애기**
2.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키워드** 도출
3. 키워드를 중심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치면서
개방된 **난장**에서 배우와 시민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양주 별산대의 교훈



- 조선조 왕족과 귀족들의 고급예술, 산대희(山臺戲)
- 인조 이후 산대희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대중적 산대놀이로 변화
 - ▶ 길놀이와 마당밧기 등으로 주민참여 유도
 - ▶ 파계승놀이, 양반놀이 등으로 현실폭로와 풍자 → 서민들의 공감대 형성
- 200년전 풍자극으로는 현대인들의 공감대 형성 곤란 → 점차 소멸



극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서양 예술은 왕족, 귀족, 부유계층 등 특권층의 전유물로 출발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급예술의 대중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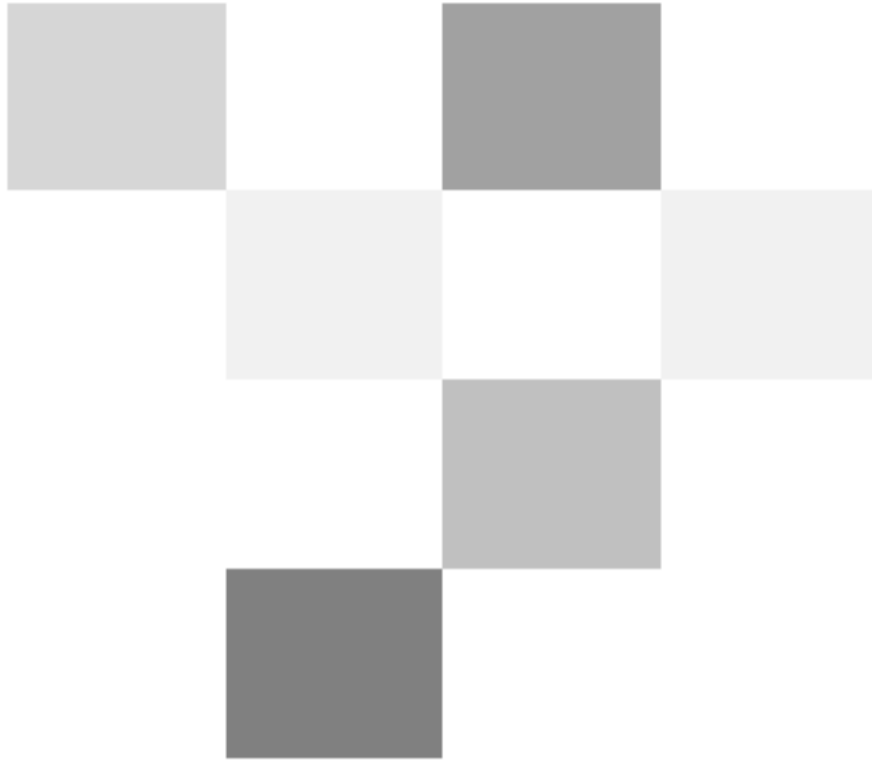
6



오순환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대표집필위원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토론1 |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김소연선생님의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 융합 -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와 축제를 다루면서 근대적 공연예술의 통시적 접근을 통해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현대공연예술이라는 발전 과정은 '축제' 라는 계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역으로 현대의 성공하는 축제는 곧 공연예술의 문제적 지점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빅터 터너가 그의 역저 '제의에서 연극으로' 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에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미널(Liminal), 산업혁명 이후 개인적인 해결장치인 리미노이드(Liminoid)로 잘 설명한 바 있다. 리미널 현상은 출생에 의해 강제적으로 편입된 농경 중심의 부족사회에서 계절적 및 생물학적 순환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리미노이드 현상은 산업화 이후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편입된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혁명 이후 일과 놀이가 분리되면서 '예술' 의 전문화와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리미노이드 현상에 가세한다고 보았다. 공연예술축제는 이에 따르면 근대로 이양되면서 생성되는 축제의 주류 경향으로 보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성과 축제성의 양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과 함께 현재 공연예술축제들이 직면한 문제들의 핵심은 자원과 조직의 지속성이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그 핵심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지적한대로 지속성은 축제적 속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이다. 축제는 지속되었을 때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축제는 이벤트나 단순 문화행사와의 차별화의 관건은 항상성(지속성과 일정 시기의 반복성)에 있다고 확신한다.

허순자선생님의 음악극, 국제성, 그리고 한국적 창작의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음악극의 개념에 모호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히 음악극으로 이름 하지 않는 공연컨텐츠들이 의정부음악극에 와서 음악극이 되었을 때는 음악극축제의 변별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봄으

로써 진정한 의미의 음악극의 존재 물음을 논하고 있다. 국제성에 있어서도 해외작품의 몇몇 초청으로 국제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 굳이 그런 용어적 갈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국제성이 결국 호혜(互惠)의 원칙이 준수되는 쌍방향의 교류일 때 그리고 그것이 지속성을 담보했을 때 가능한 용어적 선택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특히 '국제(International)' 라는 용어의 선택이 축제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고 본다⁹⁾. 그리고 한국적 창작에 있어서 방법론적 접근과 이론적 규명과 함께 보다 고차원적인 기획과 제작을 아우르는 프로듀싱 시스템의 기반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창작자의 몫이긴 하지만 유통이나 시장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사점은 사실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가 그 플랫폼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국제성과 함께 공연예술축제의 궁극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축제는 이러한 기반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인프라가 갖추고 운영되어졌을 때 대내외적으로도 주목받는 축제가 될 것이다.

오순환선생님은 음악극축제의 성공여부를 문화귀족들의 관심과 참여욕구를 극대화 하던지 아니면 일반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던지 선택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여건상 후자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라고 보았다.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축제를 찾는 고객에 대한 배려로 작품의 선택시 대중성만 확보하는 것(눈높이를 끌어내리는 것)이 선택해야하는 길이라고는 꼭 보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은 균형잡힌 나는 새들의 양익처럼 적절한 조화속에서 창작자에게는 보다 높은 창작의 발판을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음악극을 친밀감 있게 접근하는 구색 갖추기가 오히려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축제의 성공 열쇠이므로 예술에 대한 대중의 편견이나 보다 개방된 형태의 난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접근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의정부에서 수준 높은 음악극에 대한 요구는 필수적인 것으로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는 어쩌면 시민들의 축제의 접근성 확장을 위해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축제컨텐츠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

9) 우리가 '강남 스타일'에 집착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인은 자국의 역사나 문화에 매우 불안정한 무의식을 갖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전인 19세기 말부터 외세의 간섭을 받아 위기의 시대를 보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 나라 문화를 즐기고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도 두 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 첫 세대는 먹고살기에도 바쁜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회만 되면 외국인들에게 '김치 좋아해요?', '유나킴 알아요?'라고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는 같은 이유로 한국인의 역사관 중 외국인이 들었을 때 과장된 표현이 종종 있다고 지적한다 (베르너 사샤: 헤이더경향 2014년 5월호 인터뷰 발췌)

여 프로그램과 시민참여를 모두 동반상승하는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그려나가는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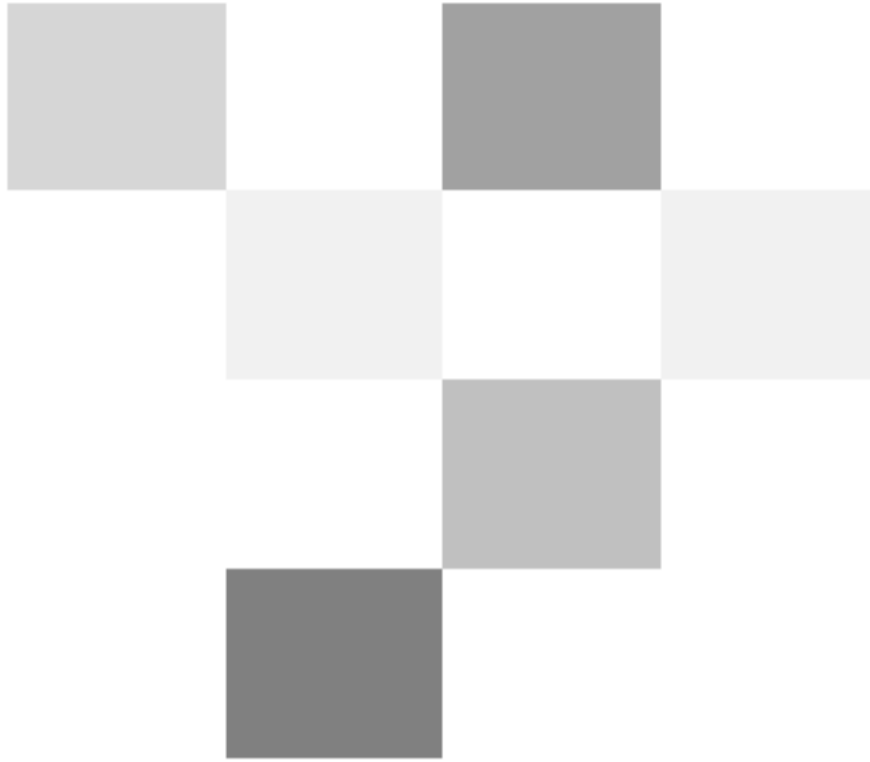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본부 본부장
전)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 본부장
전) 한국민속촌 학예사
전) 주)남이섬 기획실

Memo.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토론2 |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 융합

: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와 축제

유진규 예술감독

축제와 축제성에 대한 고찰

유진규_춘천마임축제 전 예술감독

축제에서 축제성을 말하는 것이 모순이다. 왜냐하면 축제는 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인간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요즘 인간이 오죽 인간답지 않은 일을 많이 하면 그런 질문을 하겠는가? 1998년 춘천마임축제에서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의 공연을 외국 공연자와 같이 보던 때를 잊지 못한다. 그에게 저 공연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화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전통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다. 왜냐하면 전통은 당연히 현대화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단절된 역사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문화정책에 따라 축제를 포함한 우리의 문화활동을 '미신' 혹은 '미개'란 억압하거나 금지했다. 이에 벌어진 6.25 전쟁으로 민족분단을 겪고, 군사정권의 독재가 문화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왜곡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질곡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는 한국현대공연예술축제의 범위 안에서 이 시절에 다시 우리나라 축제에서 축제성을 묻는다. 나는 우리나라에 축제다운 축제는 손가락 몇 개를 뺐을 정도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축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일상에서의 일탈이다. 이것이 없으면 축제가 아니므로 축제란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000여 개가 넘는 축제들이 축제란 단어를 쓰고 있다. 이는 행사와 축제를 구분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일탈은 거리극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엄청난 스케일의 거리극이든, 골목의 작은 거리극이든 모든 거리극은 극장공간으로부터 공연의 일탈이지, 관객의 일탈은 아니다. 그리고 관객의 일탈은 의식의

변화로부터 가능하다. 축제는 1년에 한번씩 허용된 혁명이다. 축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우리의 마을 대동제나 유럽의 바보제에서는 혁명이 아니면 불가능한 권력의 뒤바뀜을 가상현실에서나마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권력자가 축제꾼들을 통해 베푼 고도의 통치술이었다. 서민들은 그들의 합작품을 모른 척 받아들이면서 권력의 회화화를 미친 듯이 즐겼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이상적으로 이끌어가는 육인된 통치술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강제로 단절된 것이다.

축제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2002년의 함성

축제 관객의 핵심은 마니아들이며,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공동체는 대단한 소속감이 아니라 밤의 추위와 쏟아지는 잠과 시간의 무의미함과 함께 싸워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탈의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소수의 마니아만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한다면 2002년 월드컵에서 전국 곳곳에서 며칠동안 밤을 새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것이 일상을 일탈한 축제의 모습이며, 절대 소수의 마니아만을 위한 축제가 아님을 알 것이다. 하지만 축제가 열정적 자발성으로 가득차면 군중적 열광으로 치달을 수 있지만 행정력, 자본력, 대중매체, 그리고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변행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붉은악마는 여실히 보여 주었다. 아직도 우리의 권력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우며 광적인 신명풀이를 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붉은악마와 촛불 집회로 살아있음이 확인된 우리의 축제성을 살려나기엔 축제정신은 없고 이름뿐인 대한민국 축제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운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축제들은 어떤 방법을 쓰던 사람들을 복돋아서 해방감을 느낄 때 까지 집단신명을 느낄 때까지 이끌어 주어야 한다.

현대 공연예술의 주류는 극장이다. 극장도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은 맞다. 한 시간 이상 어둠 속에 꼼짝 못하고 앉아서 가상현실을 즐기는 강한 일탈이다. 그런데 그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한다. 만약에 공연연출가와 제작자들이 극장공간을 지역의 삶의 공간으로 확장시켜 그 작은 극장 안에서 퍼붓는 용단폭격을 축제에 퍼붓는다면 엄청난 일탈의 축제가 가능하겠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크고 작은 연극제, 무용제를 보면 축제에 대한 상상력이 없고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공연에

술의 극히 일부분만이 우리가 말하는 축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축제는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자생적인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주류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외된 비주류 예술인들의 도전이며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것이다. 1989년 시작한 춘천마임축제는 1995년부터 축제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연예술을 주장하지 않으며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가능하게 실현한 춘천마임축제의 대표적인 난장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본다.

아!수라장, 미친금요일, 도깨비난장

이제 다시 축제다운 축제의 부활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순수한 목적으로 축제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축제는 주위의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수한 축제성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둘째, 관, 기업, 대중매체, 정치집단은 순수한 축제성을 지켜나가는 축제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사라진 축제성의 부활을 위해 조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축제장에서 집단적 신명으로 권력이나 기득권층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와 사회적인 금기를 포함한 모든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대해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축제성이 없는 축제들은 앞으로 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 한다. 행사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이름을 찾아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혼돈을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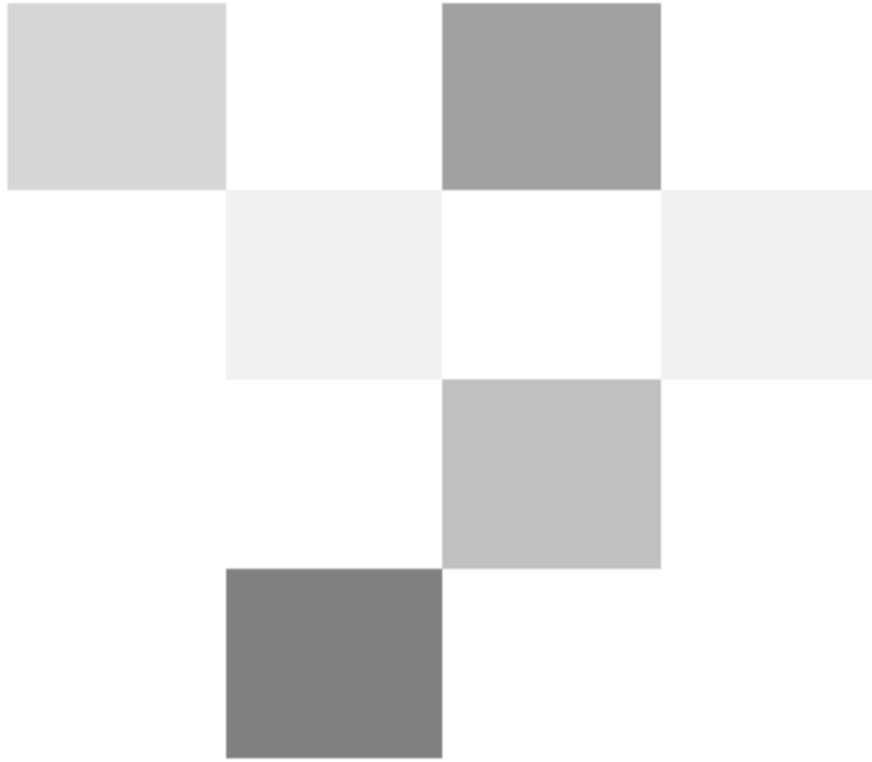
유진규

전)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한국마임협의회 결성
극단 유진규네 몸짓 창단
설치와 공연이 합쳐진 방 시리즈 발표 중

Memo.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토론3 |

이수범 경희대학교 교수

I.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개요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넓은 의미의 음악극 축제를 지향하고 음악극에 대한 보다 유연한 사고로 기존의 관습과 통념에 도전한다는 슬로건으로 예술성과 축제성을 융합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축제이다.

- 개막작 : 해를 품은 달

- 폐막작 : 닛렛

- 해외공식초청작 : 매직더스트, 맥베스, 왜 왜 질문맨 등

- 국내공식초청작 : 선녀와 나무꾼, 수궁가, 세상을 웃기는 꿈-몽알스 등

- 프린지 : 어쿠스틱 콘서트, 뮤직선협회 콘서트, 재즈밴드 콘서트,

챔버 오케스트라, 오페라뮤지컬 갈라콘서트, 타악 퍼포먼스 등

- 시네마M : 라퐁젤, 맘미아,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 킹 등

II. 홍보·프로그램개발 업그레이드 방안

(1) 축제 컨셉의 정립과 방향성 제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이라는 이질적인 개념을 동시에 추구하여 기존 공연예술축제와 차별화를 이루려고 하나 이는 축제의 모호성을 야기시킬 수 있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축제는 예술국에서 관장하고, 문화관광축제는 관광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축제 컨셉에 맞는 차별화된 메인 프로그램 개발

- 일반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예, 춘천마임축제의 도깨비난장)를 개발해야 한다.
- 의정부시의 지역 및 특성을 반영하여 관심유발 및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또한 다른 공연예술축제와 차별화된 공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제의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3) 프로그램의 전략적 제휴와 홍보의 활성화

음악극은 대표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축제를 구성하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시연되고 있는 공연예술축제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고,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예술성과 축제성을 융합하는 축제를 지향한다면, 이와는 차이는 있지만 공연예술축제로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춘천마임축제, 안산거리축제, 과천한마당축제 등의 축제와 제휴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과의 공동홍보를 통한 전략적 제휴가 판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함.

(4) 전략적 홍보의 활성화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한 홍보는 예산 부족에 따른 광고비의 한계성과 수많은 축제들과의 경쟁 때문에 제한적 → 독창적인 기획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적극 활용)

(5) 수익창출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

축제관련상품 개발 : 연계관광상품개발, 축제캐릭터상품 등 수익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의 객체가 아닌 행사의 주체로서 일정한 임무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축제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6)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평가

축제기간 중 행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기록 보존을 통해 행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축제 목표와 컨셉을 재정립하고 다음 연도의 축제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과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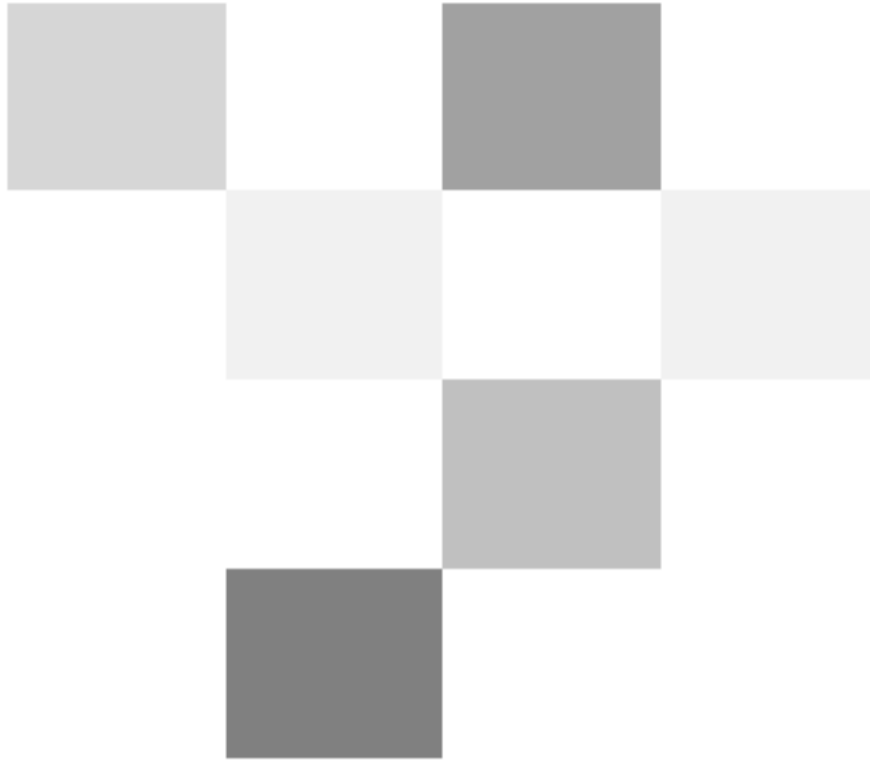
이수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경기도 축제 선정위원회, 선정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및 선정위원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Memo.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축제성과 대중성의 융합



토론4 |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 융합

: 한국현대공연예술의 전개와 축제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힘들다

: 지역 문예회관 주최 공연예술축제의 태생적이고 현실적인 한계

장 지 영_국민일보 기자

지역에서 공연예술축제가 만들어진 것은 주로 2000년 이후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관광축제(자연, 역사, 민속, 특산물 등) 중심의 지역축제가 급증했는데,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극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문예회관의 설립과 궤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연장 중심의 다목적 공립 문화시설' 인 문예회관(문화예술회관)은 1980년대 중반 제5공화국 국정지표에 문화인프라 확충이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건립이 본격화됐다. 당시 1지자체당 1문예회관을 목표로 건립하기 시작해 1980년대 20개, 1990년대 66개, 2000년대 85개 등을 지었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는 하드웨어인 문예회관을 짓기만 하고, 소프트웨어 등 운영을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실제로 2004년 복권기금 지원으로 '문예회관 문예회관 우수·기획공연 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연간 공연이 한 편도 없었던 곳이 태반이었다. 2000년대 들어 공연예술축제를 주최한 문예회관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앞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자체들이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하는 이유로는 대체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 및 문화복지는 물론 연대감 제고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식민 통치와 빠른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강릉 단오제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통 축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자체는 공연예술축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공연예술축제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문화산업' '문화도시' '창조도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은 이런 공연예술축제가 도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한때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예술축제들이 '한국의 아비뇽' '한국의 에딘버러' 라는 수식어를 남발했던 것이나 지금도 해외 작품 2~3편을 넣은 뒤 '국제' 라는 이름을 굳이 다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공연예술축제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성취보다는 외부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인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 융합' 은 지역에서 경우 너무나 많은 축제의 목적들이 충돌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 공연예술축제라면 어디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축제의 애매한 정체성은 늘 문제로 지적된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경우에도 '음악극' 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관객 입장에서 음악극의 범주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 여기에 점점 줄어드는 예산 때문에 국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해외 작품을 소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술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다. 일반 관객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보편적인 주제와 미학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공연 마니아나 관계자들을 자극시키는 실험적인 축제도 아닌 상황이다.

게다가 '보여주기' 뿐인 축제라면 이미 적지 않은 공연장에서 해외의 수작을 많이 보여주는 만큼 새로울 게 없다. 이 때문에 봄과 가을에 열리는 여러 공연예술축제들을 싸잡아 개성없는 '붕어빵' 축제라며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리고 축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품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없는데다 축제로서 요구되는 아트마켓 또는 플랫폼 역할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국가간 이동이 용이하고 공연예술이 발달된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끝에 고립된 한국, 그것도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예술축제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의 공연예술축제는 다른 지역축제와 비교할 때 참여 인구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은 게 당연한데도 지자체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축제의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계량화한다. 그리고 예술적 목적보다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비해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참고로 근대에 서양의 공연예술이 이식됐으며 경제 호황기에 지자체마다 공공극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공연 시장이 약 4조원 규모로 한국의 약 8배 정도이며 공공극장도 2100개로 한국(214개)의 10

배 정도 된다. 하지만 공연예술축제는 의외로 많지 않아서 전국에서 50개 안팎에 불과하다.

이들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유난히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가 많은데, 일본 지자체들이 축제에 관심이 없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프로듀서나 아티스트로 이뤄진 민간조직이 자체 펀딩을 통해 축제를 만든다. 이후 지자체의 지원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매년 축제를 열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받기 어렵지만 일본에선 정반대다.

일본에 공연예술축제가 적은 이유로 지역마다 마쓰리, 즉 전통축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마을이나 지역 단위로 풍요를 기원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쓰리는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대대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지자체들은 마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마쓰리에 지자체 단체장이 참가하는 것은 기본이다.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마쓰리를 중단하기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공동체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을 부흥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올봄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예술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은 지역주민 통합 기능보다는 오락성과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연시장이 활성화 된 것도 공연예술축제가 적은 이유로 지적된다. 한국은 서울이 공연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도쿄 외에 지방 도시의 공연시장도 탄탄한 편이다. 즉 굳이 축제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 국내외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지역 공공극장의 운영이 형편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부러울 정도다. 적극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지정관리자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지역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일본 공공극장들이 공연예술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마다 문예회관을 활용해 공연예술축제를 여는 곳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시즈오카 공연예술센터(SPAC)에서 열리는 시즈오카 봄 축제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의 공공극장은 공연예술축제보다는 자체 기획이나 구입, 대관

등 연간 운영에 보다 중점을 둔다.

공공극장에서 공연예술축제를 열면 연간 자체 공연을 통해 극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쉽고 홍보하기도 편하다. 따라서 공공극장을 지원하는 지자체로서도 공연예술축제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연예술축제를 통해 '반짝' 하는 것보다는 극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 일본 공공극장의 기본 입장이다.

물론 일본과 한국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공연예술축제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똑같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공연예술축제는 판에 박힌 듯한 프로그램과 단조로운 구성으로 축제의 예술성과 대중성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지역 공연예술축제는 우선 현실적인 제반 상황을 냉정하게 고려한 뒤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다만 한꺼번에 두 마리 혹은 여러 마리 토끼를 쫓기보다는 먼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토끼를 목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심사위원
저서 <문예회관 운영 가이드 Ⅰ,Ⅱ>
(전) 숙명여대, OCi미술관 강의

Memo.



Memo.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심포지엄
〈음악극, 예술성과 축제성의 융합〉

주최_ 의정부예술의전당

주관_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일시_ 2014년 5월 17일 (토) 14:00 - 16:30

장소_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